

與, 정년연장 공론화 급물살 “청년고용 위축” 온도차 여전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출범
고령층 소득공백 해소 ‘명분’
기업·청년 고용부담 가능성
노사 합의·사회적 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르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에 운영되던 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국회에서 제1차 본위원회 의를 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그것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미루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당은 60살인 정년을 202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에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올해 말 법안 성안과 본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과를 목표로 노측과 사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경영계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5개월째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인 빈곤, 저출생, 청년 고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자리는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이 이후의 대안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안을 만들어 내 갈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특위에서 이 부분이 속도감있게 국민과 노동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정년연장TF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참여한 본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경영계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논의를)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연 수출 7000억 달러 청신호

반도체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까지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 겹쳐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수출 회복 기대감이 커진데다,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가 겹치며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9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0억700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남은 11~12월 두 달간 1206억5000만달러를 추가하면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10월의 일평균 수출이 11월(596억달러), 12월(655억6000만달러)에도 이어지면 총 1251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과 12월 수출액은 각각 563억5000만달러, 613억8000만달러였으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40%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5~13% 수준 감소했었다. 2024년 연간 수출액은 683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했었다.

올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의 경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스피가 전 거래일(4107.50)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마감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증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1만전자’·‘60만닉스’ 터치 AI 열풍에 반도체株 불기둥

반도체 ‘투톱’ 모두 사상 최고가
코스피 사상 최고 4220선 돌파

‘국민주’ 삼성전자가 3일 11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증시를 이끄는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닉스’(주가 60만원) 고지에 올랐다. 두 반도체 기업은 코스피를 사상 처음으로 4220선에 올려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보다 3600원(3.35%) 오른 11만11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사상 최고가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시가총액은 각각 657조6718억원과 70조8266억원으로 늘어났다. SK하이닉스 시가총

액은 451조3614억원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179조8598억원으로, 1200조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주목한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삼성전자가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하다”며 협력을 강조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스마트가전 10년 투자, ‘생활형 AI’로 진화

국내 가전업계, AI 생태계 확장
CES서 ‘스마트홈 2.0’ 비전 공개

국내 가전업계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며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스마트가전’ 기술 투자의 결실을 맺고 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생활형 AI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을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CES)에서 대거 선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기업들은 생활 가전에 AI 연산용 칩과 고성능 MCU를 적용하는 등 구조적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에 ‘AI 비전 인식아이드’를 적용해 내부 식재료를 자동 인식하고, LG전자는 ‘AI 홈(AI Home)’ 기능을 통해 생활패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다. 기존 클라우드(서버) 기반 제어 방식에 의존하던 구조가 온디바이스(on-device) 연산으로 확장되며 처리 속도와 효율이 동시에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변화는 10여 년전 ‘스마트가전’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다. 2013년 삼성전자는 T9000 냉장고를 선보이며 음식보관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고, LG전자는 2014년 ‘홈

챗(HomeChat)’ 가전을 통해 네트워크와 센서를 활용한 맞춤형 제어를 시도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각각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LG 씽큐(ThinQ)’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전 간 연결·자동화 생태계를 구축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AI라는 명칭이 최근 불었듯, 생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발전해온 셈이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스마트·AI가전 기술은 내년 예정된 CES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대중 앞에 공개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정희준 기자 nauta@



▲이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임명
▲조국 “내년 서울시장이든 국회의원 재보궐이든 당 필요한 곳 출마” /사진 뉴시스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과도 조율”
▲국힘 반도체특위 “관세협상 승자는 미국…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사활”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 예방 대책 회의… 자살 유발 콘텐츠 대응 방안 논의
▲통일부 “북, 전략적 결단 내려 북미대화 기회 놓치지 않기를”

“AI 경쟁, 스케일 아니라 효율”… 글로벌 인프라 전략 재편

SK AI 서밋2025

효율 중심 AI 3대 해법 제시
메모리·데이터센터·활용 확대
“가장 효율적 AI가 SK 미션”

청주 HBM 신공장 내년 가동
용인 클러스터 2027년 완공
AWS·오픈AI 협력 강화 추진

SK그룹이 AI 경쟁의 패러다임을 ‘스케일’에서 ‘효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전체의 ‘3대 AI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향을 잡았고, 정재현 신임 SK텔레콤 CEO와 박노정 SK하이닉스 CEO가 각각 ‘AI 데이터센터’와 ‘AI 메모리’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했다.

SK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5’를 열고 AI 시대 경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AI 경쟁이 스케일에서 효율로 바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찾는 게 SK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AI NOW & NEXT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오픈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월 90만 장의 HBM을 요청한 사례를 들며, “이는 전 세계 월 생산량의 두 배”라고 폭증하는 수요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급자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안정적 메모리 공급’을 꼽았다. 내년 청주 H

BM 신공장 가동에 이어, 2027년 ‘청주 M15X 팹 24개 분량’의 생산능력을 갖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픈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조차 더 이상 개발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술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어 ‘미래 AI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AI 활용’을 제시했다. 울산(AWS), 천안(오픈AI) 등 파트너사

와 협력하는 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반 가상 공장(디지털 트윈)을 ‘제조AI’ 고도화 사례로 소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선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한국을 아시아 최대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AI DC) 설계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AWS와 협력하는 울산 AI DC(1GW급 확장)와 오픈AI와 협력할 서남권 DC 등을 통해 전국 거점을 확보한다. 나아가 SK이노베이션과 협력하는 베트남 사업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엔비디아 GPU 2000장을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 그룹사 AI 전환을 지원하고, AWS와 ‘에지 AI’, 엔비디아와 ‘AI-RAN’을 공동 개발해 통신사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정 SK하이닉스 CEO는 단순 공급자를 넘어 “고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 프로세서 발전 속도를 메모

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 라인업을 공개했다. 라인업은 ▲‘커스텀 HBM’(GPU 일부 기능을 베이스 다이에 통합) ▲‘AI-D’(저전력 고성능, 초고용량 등 세분화된 D램) ▲‘AI-N’(고성능 SSD, HBM 보완 낸드 등)으로 구성된다.

박 CEO는 비전 실현을 위해 엔비디아(AI 제조 혁신), TSMC(차세대 HBM), 오픈AI(고성능 메모리)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 기조연설 중 앤디 제시 아마존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아마존의 제시 CEO는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협업을 평가하며 “반도체 성능 개선이 AI 인프라 개선의 필수로 꼽히고 있다”며 “SK는 아마존의 대표적인 AI 솔루션 확장 파트너”라고 말했다.

오픈AI의 올트먼 CEO도 “각 개인이 지능형 AI 비서를 계속 활용하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SK와 같은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SK, HBM·D램 양산 확대에 ‘사활’

AI 수요 폭증에 생산라인 확충 박차
삼성, HBM4 생산라인 증설 속도
SK, M15X·용인 팹 본격 가동 준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D램 등 범용메모리의 가격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 수요 기업들이 장기 계약과 선주문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합적인 호황세 속에서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DDR4 8Gb(1Gx8) 고정저가 가격은 지난 10월 평균 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래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이다. 특히 현물 가격은 10달러선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제품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HBM과

D램 양산 비중을 조율하며 중장기 생산 전략을 정비하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범용 메모리의 단가 상승을 활용한 수익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HBM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 중이다.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HBM 공급물량을 이미 확보한 데다 추가 주문 의뢰도 이어지고 있다며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또한 HBM4용 1c 기반 생산라인 확장 계획을 밝히며 수출과 성능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 투자를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체 투자 중 D램 비중을 전년 대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제품 수요에 맞춘 투자를 예고했다. DDR5 또한 128Gb 이상 제품으로 설비 전환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또한 HBM 등을 생산할

청주 M15X 공장(팹)에 장비 반입을 시작하며 연내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 M15X는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짓는 M15의 확장 팹으로,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전 제품의 수요에 대비해 생산능력을 늘릴 전략이다. M15X는 올 4분기에 준공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D램과 HBM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415만㎡ 규모 부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용인 1기 팹 공사도 진행 중이다. 빨라진 M15X의 랩업 속도를 고려해 용인 1기 팹 건설 공기 단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용인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돼 클린룸을 더 늘릴 수 있게 돼 늘어나는 고객 수요 대응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미 관세협상 타결… 車 수출 반등 신호

» 1면 ‘연 수출 7000억…’서 계속

특히 연말은 글로벌 IT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다.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며, 6월 150억달러, 7월 147억달러, 8월 151억달러, 9월 166억달러, 10월 157억달러 등 최근 5개월간 150억달러 안팎의 수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2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0월 들어 주춤했으나 회복 가능성이 높다. 10월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향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로, 10월엔 15억7000만달러(-35.6%)까지 급감했다. 미국의 25% 고율 관세 여파로 현지 재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대미 자동차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11월 중 관세 인하가 실현될 경우 연말 반등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하 효과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등 수출 다변화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점진적 회복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서버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11~12월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 성수기로, 산술적으로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스마트홈·AI 가전 중심 전시 예고

» 1면 ‘스마트가전 10년 투자…’서 계속

CES 2026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기술(Smarter Tech for Smarter Living)’을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내걸고 오는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스마트홈과 AI 가전을 주요 테마로 가정 내 효율성과 건강 웰빙을 높이는 기술, 기기 간 연동 생태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해 TV와 가전을 하나의 전시 공

간으로 아우르는 통합형 홈 생태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LG전자는 ‘애정있는 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비전을 통해 인간 중심의 AI 경험 확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지난 달 31일 한국에 만 26만 개 이상의 차세대 AI GPU(블랙웰 계열)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AI GPU 보유량은 약 6만5000장에서 30만장 수준까지 확대되며,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형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물산, 카타르서 ‘1.9조 탈탄소 플랜트’ 수주

LNG 플랜트서 발생한 CO₂ 압축·이송
연 410만톤 지중 격리… 2030년 완공
EPC 전 과정 단독 수행 기술력 입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초대형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급

액만 1조9100억원 규모다.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km 지점 라스판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번 프로젝트는 같은 단지의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시설은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연간 41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해 20km 연장의 지중배관을 통해 폐 가스전의 지하 공간으로 이

송, 영구격리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압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송을 위한 압력·온도조절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번 공사를 삼성물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단독으로 수행한다. ▲기존 카타르 LNG 프로젝트 경험 인력 활용 ▲검증된 협력업체와의 협업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과의 간섭 최소화 등 공사 관리에 차별화 된 경쟁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남은 3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외벽에 수능 디데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 이전론 ‘꿈틀’

정부조직개편

호남 중심 농식품부 이전설 확산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검토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가 떠난 자리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가 등지를 틀 예정이다. 이같이 부처 사무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부산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빈자리엔 기재부에서 갈라져 나올 예산처가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해수부 부산이전과 맞물려 ‘결다리’ 수준에서 나돌던 ‘농식품부 이전설’이 호남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왜 농식품부는 전주인가’라며 산하 기관들이 자리한 나주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남도의의회는 지난달 하순 ‘농업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

안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청사의 전남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에 대한 의향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거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2분기에 실시된다. 지방 이전 범주가 정부 부처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3곳 체제로 바꿔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골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입법 속도 통화정책 혼드는 ‘날림’ 우려도

가상자산 선진화

與野, 관련 법안 필요성 공감
법적 지위·발행 요건 등 견해차
국회 일정 촉박… 쟁점검토 한계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주요한 입법 쟁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요건에 대한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면서 ‘날림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4건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나머지 4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정무부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목표는 올해 말이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마련했고,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일본과 홍콩도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가 진행됐다. (앞줄 왼쪽부터)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 의소 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협회 회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회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부재해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 없이는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발행 시 통화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신중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간에도 발행 주체의

자체적 이자지급 허용 여부, 발행을 위한 자본금·담보 요건, 발행 허용 업종 등에서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앞당긴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국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9일 폐회 예정으로, 금융위가 입법 초안을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전달하더라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사후 규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

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

2025. 11. 7.(금) - 11. 9.(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개막식 : 2025. 11. 8.(토)

맨손활어잡기

수산물해체쇼

어선퍼레이드

이찬원

황윤성

개막축하공연

※ 개막식 일정 및 축제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됩니다.
주최·주관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울진군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

‘삼양1963’으로 부활한 우지 라면… 36년의 한, 맛으로 풀다

삼양식품 창립 60주년 신제품 발표
우지과동 36년 만에 명예복권 강조

정직과 진심으로 제자리 찾아
창업주의 한 담은 복원형 라면
프리미엄 시장 도전 초석 다져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우지(牛脂)’를 활용한 라면을 선보이며, 창립 60주년을 맞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천명했다.

삼양식품은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 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삼양1963’ 출시 발표회를 열고, 1963년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의 품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미식 라면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삼양라면의 탄생지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진행돼 상징성을 더했다.

특히 이날은 ‘우지과동’이 발생한 1989년 11월 3일로부터 정확히 36년이 되는 날로 삼양식품은 이날을 신제품 공개일로 선택하며 “정직과 진심으로 제 자리를 찾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우지과동 당시 오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삼양1963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6년 만에 자신 있게 정직과 진심으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는 “삼양1963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이 평생 품었던 한을 조금은 풀어드리는 제품”이라며 “그리고 현재 삼양식품의 모든 임직원의 염원과 과거 회사를 떠나야 했던 1000여 명의 뜻까지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라면은 원가에 민감한 제품이지만 이번에는 원가 고민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맛있는 라면’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써서 프리미엄 제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선보인 ‘삼양1963’은 삼양라면 제조 레시피의 핵심이었던 우지(소기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삼양식품은 동물성 기름 우지와 식물성 기름 팜유를 황금비율로 섞은 ‘골든블렌드 오일’로 면을 튀겨 고소한 향과 감칠맛을 극대화했다. 조리 시 면에서 우지 품미가 육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설계해 깊고 짭 찬 국물 맛을 구현했다.

또한 ‘우지유랑’에 어울리는 탱탱한 식감과 두께로 조정했으며, 국물은 소고기 사골·닭고기 베이스에 해산물 감칠맛, 무·대파·청양고추의 얼큰함을 더해 단조롭지 않은 미식형 라면으로 완성했다.



삼양1963이 포장되어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삼양라운즈스퀘어

후레이크는 FD(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큼직한 대파, 단배추, 홍고추로 구성했다. 삼양식품은 “정말 필요한 원재료만 넣어 재료 본연의 맛과 향,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윤아리 부문장은 “동물성 유지라고 해서 살이 찌거나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다”며 “기름 1g당 열량은 식물성 이든 동물성 이든 동일하게 9kcal이며, 이번 제품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계란 노른자 한 개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지 원료는 팜유 대비 두 배 이상 비싸지만, ‘정말 잘 만든 라면’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과거 우지

논란은 익명의 투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식품을 전공한 학생과 업계 종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디어나 SNS가 없어 알릴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제 와서 잘못을 파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삼양1963을 내놓았다”며 “삼양식품은 과거에도, 지금도 정직과 신뢰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신제품으로 프리미엄 라면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윤 부문장은 “라면 취식 빈도는 2030 세대가 높지만, 프리미엄 라면 구매의향은 3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졌다”며 “제대로 된 맛을 찾는 젊은 세대와 과거의 향수를 기억하는 중장년층 모두를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만든 기업으로, 최근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1963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며 “한국의 미식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또 한번의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생산자동화·디지털전환 가속… ‘스마트 조선소’ 경쟁력 강화

HD현대·한화·삼성 AI·디지털 결합
AI·로봇 결합해 생산성 30% 향상
중국 추격 가속… 일부 공정은 앞서

조선업계가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숙련 인력 부족, 현장 안전 리스크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조선소가 K-조선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에는 그룹차원에서 ‘스마트조선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삼호중공업 등 3사는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형 조선소 FOS(Future of Shipyard)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와 협력해 데이터·가상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실(VR)·증강현실(AR)·AI·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생산 체계를 구축해 선박 설계의 효율성과 현장 작업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생산성 30% 향상과 선박 건조 기간 30%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HD현대에는 최근 독일 지멘스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선박 설계의 디지털 고도화

▲블록 조립 및 탑재 공정 자동화 ▲생산·품질·공정관리의 데이터 최적화 등 기술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AI·로봇·데이터를 결합한 ‘지능형 스마트야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용접과 가공 공정에는 로봇을 투입해 자동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 필리조션소에 스마트야드 시스템을 적용해 북미 지역 선박 정비·보수(MRO) 시장으로의 진출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조선용 로봇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동로봇 기반의 AI 용접로

봇을 시작으로 차세대 생산로봇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선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생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토 투 비전(Auto2Vision)’ 행사를 열고 조선해양업계 최초의 자동화 플랫폼 ‘S-EDP(SHI-Engineering Data Platform)’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설계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공유하고, 웹 기반 동시 접근과 실시간 협업, 도면·문서·계산서 자동 작성 기능을 지원해 설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국내 조선사들이 스마트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완전히 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대 연구진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조선소 기준으로 한국 수준에 거의 근접했으며 일부 공정 자동화 분야에서는 오

히려 국내 조선사보다 앞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본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로봇 자동화 중심의 설비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 수요에 맞지 않으면 신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으로 기존 조선소 구조로 인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조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자체는 적지 않지만, 여러 기관과 기업으로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 야드 사업도 공통된 목표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산업을 대표할 만한 플래그십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D현대重, 페루 해군과 잠수함 공동개발 LOI 체결

남미 첫 잠수함 협력으로 기술력 입증
조선기술 이전·공동설계 본격 추진
방산 협력 확대… 현지 산업 동반 성장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APEC 2025’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LOI는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양사 간 양해각서(MOU)와 올해 4월 SITDEF(국제방산·재난대응 기술전시회)에서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양사는 앞으로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및 생산 협력방안 ▲기술이전

및 기타 산업 협력 범위 등 세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계 및 건조 계약과 실질적 건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공동개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SIMA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사정,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SIMA 조선소와 함께 다목적 호위함, 초계함, 상륙지원함 등 4척의 함정을 공동 건조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 사업부 사장은 “페루 수상함 4척의 공동 건조 사업을 통해 페루 조선산업 발전과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며 “이번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

발은 HD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실바 SIMA 조선소 사장은 “이번 잠수함 공동개발 LOI 체결은 남미 해군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력이 페루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의 조선·방산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의 선택엔 이유가 있었다



IRP, 수익도 안정도
둘 다 놓칠 수 없으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입니다

KB퇴직연금 1:1 상담
퇴직연금 상담센터 1599-0099

퇴직연금이 궁금할 땐
'KB스타연금' 유튜브로 확인



2025년 1분기 말 개인형 IRP
1년 원리금비보장형 전은행권 1위, 연평균 수익률 4.01%
(5년 은행권 3위, 연평균 수익률 4.79%),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15년 연속 적립금 규모 1위
(2010년~2024년, 12월말 기준), 출처: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가격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수수료는 연0.21%~연0.45%입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775호(2025-04-29~2026-03-31)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1762호(2025.04.28.), 유효기간 2025.04.28.~2026.03.31.까지

KB 국민은행

불붙은 새벽배송 논쟁… “건강권 보장” vs “소비자 편의 저해”

민노총, 초심야시간 택배금지 제안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 시급

한동훈 “다른 업종도 금지해야 하나”
민주당, ‘택배 사회적 기구’ 중재 나서

정기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안한 택배 새벽 배송 금지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택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새벽 시간대 택배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노동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야간 노동을 하는 병원, 철도, 소방 업종은 교대제로 운영하지만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 고정 심야노동’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노총은 0~5시를 초심야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에 택배 업무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한 새벽 배송이 필요할 경우엔 오전조(5시 출근)가 업무를 이어받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코로나19 대유행(당시) 비대면 전환 이후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은 노동안전의 시급한 과제”라며 “0~5시 택배 새벽배송 제한·금지”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의 저해를 우려해 반발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 논쟁에 참전했다. 해당 주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의 토론이 성사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노총의 주장대로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이제는 새벽 장보기가 필수가 된 2000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새벽 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야간 또는 새벽에 일하는 업종이 ‘새벽배송’만이 아닌데,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의 24시간 개점, 야간 경비업무 등 다른 수많은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말’ 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만약 새벽배송 금지가 된다면, 배송 기사들의 야간, 새벽 근무는 줄어들지 몰라도, 배송 외의 물류 배송 준비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새벽, 야간 근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 논쟁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새벽배송 이용자가 약 2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새벽 배송이 소비자의 ‘뉴노멀(새롭게 자리 잡은 표준)’로 자리잡았고 새벽 배송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생계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심야 노동에 따른 택배 기사의 건강권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심야 배송 금지 요구에 대한 질의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 먼저 통과시키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따로 논의”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
쟁점없는 부분 패스트트랙 처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연구개발 집중할 환경 만들어야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단위로 정



왼쪽부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태홍 기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광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되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 53%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해”

지난 조사 비해 1.8%p 늘어
‘잘못한다’ 응답비율 1.6%p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51.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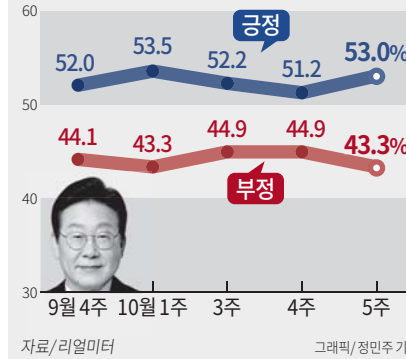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로 지난 조사(44.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9%, 대전·세종·충청 59.4%, 강원 54.6%, 인천·경기 53.5%, 서울 49.7%, 대구·경북 46.7%, 부산·울산·경남 41.3%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10월 27일~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7명 조사

무선ARS 설문방식(신뢰수준 95%, 오차 ±2.0%p)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5.7%, 50대 65.0%, 60대 58.4%, 70대 이상 42.0%, 30대 44.4%, 20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2517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 진행

첫 본예산안 편성방향 설명하고
증·감액 심사 관련 與野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심사에 돌입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의 증·감액 심사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 대전환(10조1000억원) 등 초혁신경제에 72조원, 지방 성장 거점 구축(29조2000억원)을 비롯한 포용 성장에 175조원 등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시정연설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강의·영화 감상까지… 중장년층 위한 ‘사랑방’

은행 지점의 재구성

하나50+컬처뱅크

하나은행, 중장년 특화 점포
ATM 옆 숨은 컬처뱅크 공간
사람 향한 새로운 은행 실험
금융상담·문화생활 한자리에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모바일 뱅킹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고, 자신의 순번이 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린다. 은행 업무만 보는데 최소 2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오늘은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업듣고 나왔어요. 은행업무요? 보통 수업 들으러 가면서 들르거나 수업 듣고 가요.”

지난 10월31일 오후 2시 30분. 대전 대흥동 하나은행지점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김모씨(60세)는 ‘은행업무를 봤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교육공간 ‘하나50+컬처



하나50+컬처뱅크 연금라운지.

/하나은행

뱅크’를 만들었다. 하나의 건물에 하나은행 지점과 중장년 지원센터, 힐링라운지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센터에 은행이 있는 걸 컬처뱅크라고 하는 건가?’

위에는 하나은행, 옆에는 중장년지원센터라고 적힌 간판을 지나 1층에 놓여져 있는 ATM을 보며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1층 하나50+컬처뱅크가 적혀 있었다. ATM기가 있는 공간이 컬처뱅크

라는 소리다.

그러던 찰나 ATM기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어르신이 ATM뒷편에 있는 검은색 유리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펼쳐졌다. 옛적 손님을 접대하거나 교류할 때 답소를 나누던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했던가. 하나은행만의 사랑방 컬처뱅크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하나50+라운지라고 적혀 있는 ‘연금라운지’가 보였다. 연금라운지는 연금 고객과 사대공적연금, 퇴직

연금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있다.

강의실은 3층 중장년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초청 세미나, 강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최대 2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여러강의로 강의실 사용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극장도 있다. 2명 이상이 영화를 결정하거나 가입한넷플릭스, 티빙등에서 볼 것을 결정한 뒤 하나50+컬처뱅크에 연락하면예약시간에 맞춰 상영해준다. 음악감상실은 LP판과 CD플레이어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앱 거래가 늘며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비해 하나50+ 컬처뱅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세웠다. 중장년층이 금융업무를 보러 은행에 오면서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 삶의 여백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실험이다. 이곳은 기술 대신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맞춤 프리미엄 혜택 더클래식네오 카드

신한카드는 3일 ‘The CLASSIC NEO(더클래식네오)’ 카드를 출시했다.

더클래식네오는 고객 소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자기 개발, 의료, 보건 등 혜택 대상 업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나를 위한 기프트(Gift)’ 혹은 ‘가족을 위한 Gift’ 중 하나를 선택하면, 연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한 Gift 선택 고객에게는 쿠팡, 무신사, 올리브영 등에서 7만원 이상 결제 시 7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가족을 위한 Gift의 경우 병원, 약국, 주유 업종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 금액의 최대 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11만 7000원, 해외 겸용 12만원이다.

현대카드

시너 vs 알카라스 슈퍼매치 경기 개최

현대카드는 오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야니 시너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경기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현대카드의 대표 문화 마케팅 브랜드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초청해 국내 최초 라이벌 매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남자 테니스 순위 1·2위 단독 이벤트 경기가 준비됐다. 야니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테니스 빅3 시대(조코비치·나달·페더러)’의 뒤를 이어 ‘알카라스-시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현역 선수들이다. 이번 경기 표는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선예매는 이달 18일 정오부터, 일반 예매는 19일 정오부터 진행된다.

삼성카드-호텔신라

숙박권 기프트 혜택 라리워즈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3일 호텔신라와 함께 ‘신라리워즈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신라리워즈 삼성카드 고객은 ▲신라호텔(서울·제주) 1박 숙박권 ▲신라스테이(국내) 2박 숙박권 ▲50만 신라삼성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연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숙박권 기프트에는 2인 조식 혜택이 포함되며, 1 신라삼성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용처에 따라 1000원당 최대 50 신라삼성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이용 금액 1000원당 12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항공·골프·백화점·면세점 이용 시에는 1000원당 최대 30포인트를, 신라호텔(서울·제주)·신라모노그램·신라스테이·해외 이용 시에는 1000원당 최대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NH농협금융, NIM 하락에도 비이자이익으로 버텼다

이자이익 2050억 줄어든 6.1억 비이자이익 1.8조… 20.6% 증가

NH농협금융은 외부 변수들이 이익을 잠식하자 대비금을 두껍게 쌓고 비이자 수익원을 확대했다. 금리 압박으로 이자이익이 줄었지만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정책을 통해 실적 하방을 완충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 3분기 성적표의 핵심은 ‘이중 완충’이다. 먼저 리스크 흡수력 측면에서 고정이자여신비율(NPL)은 0.58%로 낮아졌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6.4%로 주요 금융지주(KB 133.4%, 신한 124.09%, 하나 105.0%, 우리 130.0%)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49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1억원(27.6%) 감소해 손익 변

동성도 낮았다.

수익 측면에선 비이자이익이 힘을 보탰다. 비이자이익은 1조8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3억원(20.6%) 늘었다. 구성별로는 유가증권·외환와생 손익이 2641억원, 수수료이익이 1679억원 증가했다. 이자마진 하락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7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5억원 증가했다. 유상증자 1위와 회사채·기업공개(IPO) 2위 등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성과와 함께 10억원 이상 고객자산가 고객수가 전년말 대비 33.6% 늘었다.

NH농협금융은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NH투자증권은 그룹 비이자이익 성장을 주도해 시장 내 지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본업은 마진 하락세가 이어졌다. NH농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24년 9월 1.91% ▲2025년 6월 1.70% ▲2025년 9월 1.6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NIM 하락에 따라 NH농협금융의 이자이익 역시 전년동기 대비 2050억원(-3.2%) 감소한 6조1863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손익의 흐름을 보면 NH농협금융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2조3020억원) 대비 421억원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3분기 6312억원으로 2분기(9146억원) 대비 2834억원 둔화했다.

자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1조5796억원 ▲NH투자증권 7481억원 ▲NH농협생명 2109억원 ▲NH농협손보 1219억원 ▲NH농협캐피탈 874억원 순으로 실적을 냈다. 반면 NH저축은행은

-17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NH농협금융의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이익률(ROA) 0.60%, 자기자본이익률(ROE) 9.48%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고금리 정점 구간 이후의 이익 체력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NH농협금융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감소세 지속, 보험 손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 있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유가증권 운용손익과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성장이 3분기 견조한 실적 견인했다”며 “대내외 경기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결과 고정이자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직권탐사 실시

지하안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상업·한일 ‘통합 동우회’ 출범

우리은행은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퇴직직원 동우회가 합병 26년 10개월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

자동에 새롭게 단장한 통합 동우회 사무실에서 ‘통합 우리은행 동우회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우회는 퇴직직원 간의 친목과 상호보조를 위한 자율적 모임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이차전지, ESS 포트폴리오 강화... 중장기 경쟁력 키운다

LG엔솔 각형 기반 제품 상용화 추진
삼성SDI 美 합작법인 중심 사업 확장
SK온 내년 LFP ESS 배터리 양산

이차전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정체와중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실적 회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미에서 처음으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 효율화와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며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삼성SDI와 SK온도 잇따라 북미 생산라인 전환과 투자를 확대하며 ESS 중심의 성장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 601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배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양산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을 시작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대 중국 관세 인상과 탈중국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산 배터리 수입이 제한되면서 현지 생산의 이점이 부각됐고 ESS 사업이 수익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까지 북미 지역 ESS 생산능력을 3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2027

년까지 각형 기반 LFP ESS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적자 탈출을 위해 미국 내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ESS 사업 강화에 나섰다. 지난 10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의 일부 라인을 삼원계(NCA) 기반 ESS 배터리 생산용으로 전환해 가동을 시작했으며 내년 4분기에는 LFP 배터리 양산

라인을 추가해 북미에서 연간 3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온은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개조해 내년 하반기부터 LFP ESS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을 포함한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ESS 중심으로 전환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지난 10월 미국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1GWh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6.2GWh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객사와 최대 10GWh 이상 규모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SK온은 지난 1일 SK엔부와의 합병을 공식 완료하고 기술·사업·재무 등 핵심 부문에서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배터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산업의 성장세가 맞물리며 ESS 수요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6년 북미 ESS 시장은 올해보

다 40~50%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전반에서는 내화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 기술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ESS에는 내화성과 공간 효율성이 높은 LFP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며 중국은 이미 LFP와 NCM 기술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나트륨이온배터리 개발까지 진행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한·중·일 3국 경쟁 구도지만 일본은 파나소닉 중심의 체계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CATL 같은 중국 업체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미 LFP와 NCM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까지 병행하고 있어 불리한 기술 격차를 조속히 좁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3분기 실적 발표

HD현대, 정유부문 흑자... 영업이익 294% ↑

매출 18조2243억, 영업이익 1.7조
조선·중공업 등 계열사 실적 견조

HD현대(대표이사 회장 정기선·사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8조2243억원, 영업이익 1조702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294.5% 증가했다. 조선과 전력기기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간 가운데 정유 부문이 흑자 전환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와 생산성 개선 효과로 매출 7조5815억원, 영업이익 1조538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164.5% 늘어난 수치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M(After Market) 사업과 디지털 솔루션 부문



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3%, 영업이익은 12.2% 증가한 5132억원과 936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기계 부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북미·유럽 시장 수요 회복과 신형·광산 시장 공략, AM 사업 다각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8% 늘어난 2조526억원, 영업이익이 96.7% 증가한 1432억원을 거뒀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원가 경쟁력 강화와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업황 둔화로 석유화학 사업이 부진했으나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매출 7조3285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을 거두며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장 가동 안정화와 효율 극대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변압기 판매가 확대되고 국내 고압차단기 매출이 증가하며 매출 9954억원, 영업이익 2471억원을 기록했다. 고부가 프로젝트 반영으로 영업이익률은 24.8%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 및 전력기기 부문의 실적 호조 속에서 정유·건설기계 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3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 극대화를 통해 안정적 실적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에어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

매출 6조4865억, 영업이익 8564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부문 선전으로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4865억원, 영업이익 8564억원을 달성했다고 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79% 증가했다. 지상방산 부문의 견고한 수익성과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2조1098억원, 영업이익 57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 늘었다.

국내 매출은 화생방 경찰차, 차륜형 대공포 판매 등 주요 양산 사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9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 부문은 정비 수요 활성화에 따른 엔진 부품 AM(에프터 마켓) 물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6% 증가한 6040억원,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회사인 한화오션은 액화천연가스(LNG)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이 확대되며 매출 3조234억원, 영업이익 2898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8077억원, 영업이익 225억원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올 3분기 실적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방산사업 포트폴리오가 실적을 이끌었다"며 "4분기에도 자회사들과 육해공 방산 시너지를 발판으로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에서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S효성그룹, '실리콘 음극재' 사업 본격화

유미코아 합작법인 설립 추진
조현상 부회장, 현장 진두지휘

HS효성그룹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HS효성은 지난달 31일 1억2000만 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벨기에 글로벌 소재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조현상 부회장이 코로나 이전부터 유미코아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추진해 온 것으로, APEC 준비 기간에도 협상을 위해 양사 간 철야미팅을 이어가며 계약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은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과 바트 샴 유미코아 CEO이 벨기에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HS효성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첫 투자지는 울산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관계자는 "기존 타이어코드, 첨단모빌리티 소재, AI·디지털전환(DX) 중심 사업 구조에 이번 배터리소재 사업이 더해지면서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방산·에너지 등 고성장 산업 전반으로의 포트폴리오 확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KAI, SAR 정찰위성 5호기 성공 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자사가 자체 제작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지난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더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 발사체를 사용, 발사됐다고 3일 밝혔다.

425 사업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EO)·적외선 장비(IR) 탑재 위성을 군집하는 국방 감시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KAI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SAR위성체 시제제작 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SAR위성체 시제 제작업체로서 위성체 환경시험, 제작, 발사 등 개발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우주기반 정찰 전력을 확보해 주요 관심 지역의 관측자료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후속사업 또한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우주사업 확대를 위해 7월 민간 최초로 4톤(t)급 대형 열진공 챔버(Thermal Vacuum Chamber)를 본사 우주센터에 구축하며 소형부터 대형 위성까지 동시 시험할 수 있는 체계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전자파 시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원스톱으로 '설계-제작-환경시험'에 이르는 위성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주센터를 완비, 후속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수익성 방어’ 넘어 체질개선 전환점 제강3社, 고부가·친환경 전략 강화

3분기 모두 이익률 개선 ‘선방’
원가절감 등 실적 안정 이끌어

포스코 전기강판·고망간강 확대
현대제철 車강판·수소환원제철 강화
동국제강 후판 고급화·수출 확대

국내 제강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가 3분기 수익성 방어에 성공하며 실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과 고수익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 고부가 제품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업계는 4분기와 내년을 고부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시장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고 탄소세·관세 장벽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강사들은 3분기 중 원가 절감과 전략적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대체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8조 8000억 원, 영업이익 5800억 원, 당기순이익 42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8%, 순이익은 61.5% 증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탄소강 평균 단가는 하락했지만 중저품위강·저가탄 사용 확대에 따른 원재료 입고단가 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한 톤당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반영됐다.

현대제철은 연결 기준 매출 5조 7344억 원, 영업이익 932억 원, 순이익 17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0%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1.0% 증가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수익성 유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강은 별도 기준 매출 7692억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 공장 전경.

/포스코

원, 영업이익 245억 원, 순이익 10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3% 줄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0%, 5.8% 증가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봉형강류의 수요가 줄었는데도 철근은 품종 다양성과 건설사 맞춤형 영업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일부 유지했다.

다만 3사 모두 매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철강 제품 가격 하락,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과잉 등 외부 변수들이 복합 작용한 영향이다.

리스크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글로벌 전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주요 투자지로 설정했으며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지분 인수를 통해 고율 관세를 우회하고 현지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강판, 고망간강, 수소환원용 강재 등 고부가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구동모터와 발전기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능력을 내년까지 200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고망간강은 LNG·수소 저장용 극저온 강재로 상업화에 성공해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도 푸네 지역 스틸 서비스센터(SSC) 준공을 통해 자동차

강판 공급 거점을 확대하고, 호주 친환경 인증을 기반으로 건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초고장력강, 시트레일용 냉연강판 등 차세대 차량용 소재와 함께 H형강 기반의 기능성 구조재인 ‘HC 컷팅’ 등 건축 철강 고부가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설립, 수소환원제철 국책과제 참여 등도 병행 추진 중이다. 동국제강은 후판 부문에서 초극박물, 후물광폭 클레드강 등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로 조선사들의 고급 선종 확대 흐름에 따라 중장기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싱가포르·태국 등 해외 인증을 통한 수출 확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틸샵’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D 효과는 물량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후판에 일부 반영됐으며 열연은 연말부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스프레드 개선은 내년 2~3분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시점부터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달중 예고한 산업 고도화 전략은 단순 수입 규제 차원을 넘어 가동률과 수익성을 반영한 구조조정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장평순 “시너지 전략, 교원그룹의 경쟁력”

창립 40주년, ‘통합 플랫폼’ 비전 제시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시너지 전략은 교원그룹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라며 “사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어려운 시기에도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장평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아주 작은 출판사로 시작해 지금은 국내 대표 교육기업인 동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인생에 걸친 생활을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유례없는 성장과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교원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1985년 당시 교원그룹의 모태가 된 ㈜교원을 창업했다. 출판사로 출발해 현재는 교육, 렌탈, 상조, 여행, 헬스케어, 펫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선도하는 국내 대표 ‘토털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은 1조 363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교원그룹 계열사인 교원라이프는 선수금 규모와 재무건전성, 브랜드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교원그룹

평판 등 업계 주요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생활문화 부문의 주요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통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연이 만든 오늘, 교원이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40주년 행사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교원그룹은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K-UAM 실증 성공… 상용화 성큼

인천~계양 12일간 실증 진행

대한항공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상공에서 UAM 통합 운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한 국내 첫 사례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정부 주도 실증 사업으로, 운용 안정성 검증과 운영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이번 실증은 지난달 16일부터 31까지 12일간 인천 서구~계양구 아라뱃길 일대(공역 면적 44.57㎢)에서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KT와 함께 국내 최초로 UAM 교통관리 실증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사업에서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주관사 역할을 수행했다. 도심 저고도 비행의 안전성 확보, 교통관리 시스템 간 관제권 이양, 비정상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 ‘ACROSS(Air Control & Routing Orchestrated Skyway System)’의 성능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ACROSS는 비행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차상근 기자 skc8472@

中企 체감경기 침체… 제조업만 ‘선방’

중기중앙회 SBHI, 70 중반대 횡보
수출 선방했지만 내수·생산은 악화

중소기업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전망 지표 뿐만 아니라 재고량, 가동률 등이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 없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1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5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선 2.1, 전년 동월에 비해선 0.4 각각 상승했다. 제조업(83)이 그나마 비제조업(75.1)에 비해 선방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건설업(68.6)이 더욱 암울했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로도 불리는 SBHI는 기업들의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답변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

는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100미만이면 그 반대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 SBHI는 2월에 67.5까지 떨어졌다 지난 9월엔 80.3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7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SBHI의 경우 최근 3년의 11월 평균과 비교해봐도 수출, 자금사정, 원자재만 ‘개선’됐을 뿐 경기전반(업황), 생산, 내수판매 등 7개 항목이 모두 ‘악화’됐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9월 현재 72.4%로 전월(70.4%)이나 전년 동월(71.5%)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72%)나 2023년(72.2%) 평균 가동률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60%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이 60% 중후반에 머물렀었다.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전산업 가동률 평균은 72%였다.

수전 등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립 후 처음으로 2023년 당시 적자를 기록한 이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위축, 중국산공급에 더해 원자재값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동종업계에서 규모가 적은 곳의 상당수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0월에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제품판매)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기업의 재고 지수 증가율은 2.2%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LG CNS, 글로벌 고객 혁신 지원 인니서 ‘클라우드 ERP 전환’ 성과

(기업자원관리)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과 사업계약
SAP RSSP 이니셔티브 합류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서 거둔 첫 성과
관리 부담↓, 비즈니스 효율성↑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의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온프레미스(설치형)에서 클라우드로 바꾸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독일 SA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서비스 파트너(RSSP)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거둔 첫 성과다.

LG CNS는 최근 마곡 본사에서 코린도그룹과 클라우드 ERP 전환을 위한 사업 계약을 맺었다. 체결식에는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과 CIO 김용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팜오일, 중공업, 금융, 해운, 물류, 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이다.

LG CNS는 코린도그룹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사용 중인 SAP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코린도그룹은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글로벌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비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오른쪽)와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즈니스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 CNS 관계자는 “자사는 ERP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고도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에이전틱 AI 등 최신의 AI 기술을 ERP 시스템에 적용하는 ‘AX on ERP’ 전략을 통해 고객이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고, 재무·인사·구매 등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RP분야 선도 기업인 SAP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월 RSSP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데 이어, 5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SAP 사파이어 2025’에 참가해

AI 기반의 ERP 테스트링 신기술 ‘퍼펙트 원 ERP 에디션’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끌었다.

LG CNS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내한신 전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린도그룹의 비즈니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클라우드 ERP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린도그룹 문진석 부회장은 “LG CNS는 풍부한 글로벌 ERP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LG CNS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 시니어 고객 맞춤형 가전구독 서비스 선포

KT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가전구독 서비스 ‘LG 쉬운(Easy) TV’ 시니어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KT가 추진하는 가전구독 라인업 확장 일환이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품질 보장과 사후 케어를 결합한 구독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 서비스는 전용 기능과 자주 쓰는 앱을 큰 글씨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 모드 홈 화면과 전용 리모컨인 이지 리모컨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복잡한 조작 없이 손쉽게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운동과 복약 등 생활 알리미 기능, 사진 촬영과 출력 가능한 사진관 기능,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LG 버디, 원격제어 및 도움 요청이 가능한 헬프 버튼 등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가족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기능도 제공한다. KT는 LG Easy TV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해상과 제휴해 3년간 무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은 시니어 고객의 생활 환경에 맞춰 구성된 5대 주요 보장항목으로 ▲응급실 내원시 긴급 후송비 등 응급비용 보장(연 1회 최대 50만원) ▲레저활동 중 상해사고 보장(최대 5000만원) ▲TV 방문수리 서비스(연 1회 100만원 한도) 등으로 구성된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亞 최대 AI 허브 만들 것”

정재현 신임 SKT CEO
‘SK AI 서밋 2025’ 기조발표
울산 AI DC, 대규모 확장 검토

정재현 신임 SK텔레콤 CEO가 ‘SK AI 서밋 2025’를 통해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기조연설은 그의 취임 후 첫 공식 업무였다.

정재현 CEO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대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센터(AI DC)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재현 CEO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날 정 CEO는 우선 국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전국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조 원을 투자해 짓는 울산 AI DC는 1GW 이상으로 대규모 확장을 검토한다. 또한, 오픈AI와는 서남권 AI DC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가산 GPU 클러스터), 경남(울산), 서남권을 잇는 전국 AI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SKT의 AI DC 사업은 해외로도 향한다. 정 CEO는 “SK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AI 인프라 전략의 Next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며 베트남 사업을 예로 들었다. SK 이노베이션과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LNG 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확보와 냉열 에너지를 냉각에 활용하는 에너지 특화 솔루션을 포함한다. 향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인프라의 또 다른 축은 ‘제조 AI 클라우드’이다. SKT는 엔비디아로부터 RTX PRO 6000 GPU 약 2000장을 도입, SK하이닉스 등 그룹 제조사의 AI 전환(AX)을 지원할 제조 AI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솔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 선포

네이버가 광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도 디지털 옥외광고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광고 솔루션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AI 기술력이 접목된 신규 디지털 옥외광고(DOOH) 솔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영화관, 전광판, 대중교통 등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에 배치된 디지털 매체에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네이버의 신규 광고 솔루션이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통해 광고 소재 등록 및 심의부터 데이터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옥외광고 경험이 없는 광고주라도 손쉽게 디지털 옥외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오토클립 AI’ 기술이 적용돼 각기 다른 규격을 지닌 매체에 맞춰 영상 광고 소재의 화면 비율

이나 사이즈를 자동 최적화해준다. 예컨대, 일반 가로형 영상 소재로 세로형이나 특수 가로형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원본 영상을 수정해 규격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식이다.

노출 지면의 다양성도 애드부스트 스크린의 강점이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영화관 ▲도심지 대형 LED 전광판 ▲택시 LED 스크린 ▲음식점 주문·결제 기기 등 광고 주목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디지털 매체를 확보해 광고주가 옥외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는 오피스·쇼핑·교통 등 마케팅 목적에 맞게 세분화된 타겟 설정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연동 대상 매체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자신의 영업장 주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 별도의 애드부스트 스크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T, 도심항공교통 5G 항공망 안정성 인증

K-UAM 2단계 실증 성료

KT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진행된 UAM 통합 운용 검증으로, KT는 통합 교통 관리 체계와 도심항공교통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5G 항공망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KT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으로 구성된 K-UAM 원팀의 일원으로,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15km 구간에서 실증을 수행했다. 자체 개발한 UAM교통관리시스템(UATM)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립한 표준 운영절차(SOP), 5G 항공망,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실제 도심 환경에서 집중 검증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정상 비행뿐 아니라 통신 두절, GPS 불안정, 돌발 비행체 출현 등 다양한 비정상 상황을 재현했다. KT는 교통관리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관리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UAM 운항 관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KT는 800MHz 대역의 전용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RTK-GNSS, KASS, ADS-B, MLAT 등 감시 기술을 융합해 항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를 통해 통신 전송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조종사와 관리자의 의사소통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5G 항공망을 활용한 비행 데이터 실시간 처리로 기존 4단계에 이르던 비행허가 절차를 1단계로 단축시켰다. 이는 다수의 UAM이 동시에 운항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 운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

크래프톤, 박재철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크래프톤은 박재철 본부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MO·사진)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수 클러스터 이전 및 e스포츠 등 주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박재철 CSMO는 삼성 계열사에서 약 20년간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미래셋자산운용에서 산업안전과 환경경영 전담을 총괄한 전문가다. 그는 크래프톤의 전사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성수 클러스터 이전과 e스포츠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성수 클러스터 이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이 식별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e스포츠 등 대형 오프라인 행사에는 사전 위험평가부터 현장 점검,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사업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더 간다 vs 고점이다”… 반도체 랠리 속 차익실현 눈치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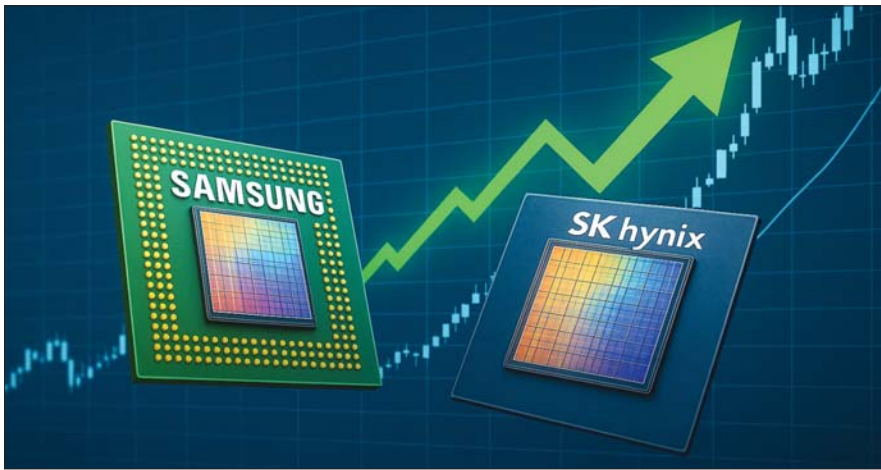
‘11만전자·60만닉스’ 시대

반도체 전문가 “아직은 팔 때 아냐”
빅테크 기업, B2B 구조 AI 투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 전망
증권사, 양사 목표주가 상향 조정
업황 사이클보다 선고점 형성 주의

‘11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11만원), 60만 닉스(SK하이닉스 주가 60만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60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날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0.91% 오른 6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도 종가 60만원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오전부터 목표 주가를 100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장중 11만1500원을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속에 주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10만원을 넘어섰지만,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는 전날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호황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 이미지.

다 3.35% 오른 11만1100원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2위 기업이 연일 질주하는 가운데, 두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은 지난달 21일 장중 1000조원(우선주 포함)을 돌파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 수익을 거둬들이면 되는지로 모이고 있다.

◆반도체 투톱 ‘코스피 4000시대’ 이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256.53%, 삼성전자는 108.83% 올랐다. 작년 말 기준 두 회사 시가총액은 합계 400조원대였지만, 현재 두 배 넘게 불어났다.

5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6월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9월 이후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곡선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두 종목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놓은 투자자 대부분은 현재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4분기 들어 개인은 SK하이닉스 주식을 3조4787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다. 2위 한화에너지(7279억원)와 격차도 크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도 SK하이닉스를 1조2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10월 이후 수익률만 78%가 넘는다는 회사원 이모(43)씨는 “평균 매수 단가

가 23만5000원인데, ‘50만닉스’까지는 팔고 싶은 유혹을 잘 버렸는데 막상 ‘60만닉스’가 현실이 되니 심각하게 고민된다”며 “SK하이닉스를 가진 주변 동료 대부분이 (언제 팔지) 눈치 게임 중”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팔자니 아깝고 사자니 부담되고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수퍼사이클은 진짜”라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2년 주기로 등락했던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모바일과 PC, 가전 등 소비자 중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라는 점에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런 배경 속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55만9000원 선이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산업이 바뀌었으면 기업가치 평가의 방

법론도 바뀌어야 한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08% 오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도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제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84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노무라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38%, 46%씩 상향 조정한 99조원, 128조원으로 추정했다.

KB증권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각각 15만원, 17만원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삼성전자 내년 예상 최대 영업이익(D램 평균 판매단가 전년 대비 26% 상승)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와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협력으로 메모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보다 주가가 늘 앞서갔다는 게 문제다.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기 약 6~9개월 전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후 먼저 꺾인 적이 많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글로벌 엔터테크 도약… 몸값 적정성은 ‘글쎄’

IPO 간담회

더핑크퐁컴퍼니

핑크퐁, 아기상어 등 글로벌 IP 보유
코스닥 도전장… 희망가 최대 3.8만
비교군에 산리오 등 수익성 격차 논란

핑크퐁과 아기상어, 베베핀 등의 지적재산권(IP)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더핑크퐁컴퍼니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희망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산리오, 드래곤볼 등이 비교군으로 선정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거론되고 있지만, 더핑크퐁컴퍼니는 글로벌 엔터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사진)가 3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핑크퐁컴퍼니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쌓아온 IP 성공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엔터테크 기



업으로 도약하겠다”며 향후 기업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 설립된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호기심 ▲베베핀 ▲썸룩 등 글로벌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콘텐츠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는 60개월 연속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설립 초기부터 ‘Born Global’ 전략을 기반으로 244개국·25개 언어 현지화 체계와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해 왔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해외 매출 비중 76%, 콘텐츠 매출 비중 68%, 영업이익률 약 20%를 기록했다.

다만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해외 매출 비중이 2024년 74.2%, 올해 75.6% 수준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 특정 영상 플랫폼의 과점화에 따른 콘텐츠 공급자의 협상력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공모가를 두고 적정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회사는 희망공모가를 3만2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주당 가치 평가를 위해 이미 상장돼 있는 유사 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사용했는데, 비교군으로 ▲SAMG엔터(티니핑 등) ▲카도가와 ▲산리오 ▲토에이애니메이션 등 4개사를 선정했다. 캐릭터 IP 중심 기업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규모와 수익성에서는 격차가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산리오의 시가총액은 약 14조원대로, 4600억원에서 5400억원대로 예상되는 더핑크퐁컴퍼니와 비교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할인율도 보수적으로 적용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핑크퐁컴퍼니가 적용할 할인율은 28.67%~15.30% 수준인데, 지난달 1일 상장한 명인제약은 47.6%~32.4%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박현주 회장, 서울대에 26년간 53억 기부 <미래에셋그룹>

서울대, 박 회장에 감사패 증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서울대학교에 26년간 52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3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이어온 박 회장의 나눔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지속적인 인재 육성 노력을 기렸다.

박 회장은 “배움의 여정은 도전에서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실현해가는 여정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난달 31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총장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용기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든든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KODEX 200’ 순자산 증감 1위

4.9兆 기록… ETF 중 최고액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상장한 ‘KODEX 200’이 올해 들어 순자산 증감액 4조960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 가운데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순자산 10조원에 돌파하며 국내 주식형 ETF 1위의 자리를 수성

했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인공지능(AI), 전력,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 가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로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원을

돌파해 1조93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로 투자자들에게 입소문을 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한 몫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KODEX 200 ETF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연초 이후 85.3%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상장 이후 1064%(10배)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한국서부발전 SLB 단독주관

<지속가능연계채권>

총 15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KB증권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달 31일 발행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단독 주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5년 만기 600억 원 규모의 SLB를 포함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이 이어 두 번째 SLB 발행 사례다.

SLB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 채권 중 하나로, 발행사가 사전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서부발전이 발행한 SLB는 2018년 대비 202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4%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 상환 시점에 10bp(1bp=0.01%포인트)의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신하은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점검

“정부·기업 협력으로 내수 회복”

유튜버 프나르 만나 K-푸드 홍보
가전매장 찾아 실질혜택 등 강조

7개부처·3만개 기업참여 역대최대
가전·숙박·여행연계 실질혜택 ↑
국민 체감형 행사로 내수 활력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 서울
역 롯데마트 제타플렉스를 찾아 ‘코리
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홍보에 나섰
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
께 성장하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걸고
관계부처와 업계가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쇼핑축제의 일환이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역점은 공
항과 관광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푸드, 뷰티,
패션 등의 성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외
국인 특화존에서 한국 과자와 김, 라면
등 K-푸드 제품 인기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유튜버 ‘프나르(P 1
nar)’의 홍보 영상 촬영에 깜짝 출연해
K-푸드의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으뜸효율 가전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가전매장(하이마트)을 방문
한 김 장관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관측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지난 2016
년부터 10년을 달려온 코리아세일페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타가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한 단계 도약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중기부
(동행축제), 문체부(여행가는 가을 캠페
인), 행안부(지역사랑상품권), 농림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해수부(수산물
할인판매), 관세청(코리아 듀티 페스타)
등 7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 개 기업이 참여
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할인전 ▲가
전·자동차·패션·숙박 등 대형 할인행사
▲숙박·여행·문화이벤트 ▲외국인 관광

객 특별행사 등을 연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부와 가전업계는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정부 보조 10%(최대 30만
원)에 제조사 추가 할인(최대 30만원 상
당)을 더해 최대 60만원 혜택을 제공한
다. 삼성전자·LG전자(~11월30일), 위
닉스·신일전자(~11월16일), 쿠렌(~11
월9일) 등 주요 제조사가 대대적인 프로
모션을 진행한다. 업체별 세부 할인계
획은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11월9
일까지 이어지며, 산업부는 유통·가전·자
동차 업계와 협력해 전국적인 소비 진작
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온라인쇼핑 3분기 거래액 69조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 “자동차 거래 급증 견인”
이쿠팡서비스 1년 만에 반등세 전환
모바일쇼핑 54조 돌파, 10% 증가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
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및 자
동차용품 거래액이 전년대비 136% 급
증하며 전체 거래 증가를 견인했다. 이
는 수입전기차 신차종 출시, 중고차거
래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자동
차 구매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
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9조2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63조5460억 원) 대비
9.0%(5조7339억 원) 늘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
된 2017년 1분기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

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9.0%) 역시
지난해 2분기(9.8%) 이후 1년3개월 만
에 최고치다. 상품군별로는 3분기 기준
으로 상품군별로는 가방(-9.4%)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
(8.4%)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쿠팡서비스거래액은1조5121억원으로
2.2% 늘면서 약 1년 만에 증가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전기자동차
인도량 증가와 중고차 온라인 구매 확산
이 맞물리며 자동차 관련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쿠팡서비스
는 지난해 7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
어왔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회
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 여파

로 거래가 위축됐던 기저 효과가 해소되
면서 올해 들어 반등세가 본격화됐다”
며 “특히 이쿠팡서비스 거래액이 상승
전환한 것은 티메프 사태 영향에서는 벗
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54조631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4조8954
억원) 증가했다. 음·식료품(18.3%), 농축
수산물(2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
졌다.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6943억원
(7.8%), 해외 직접구매액은 2조1224억원
(9.2%)으로 모두 증가했다. 직판은 미국
(28.1%)·일본(16.0%)을 중심으로 크게 늘
었다. 주요 품목은 화장품(5.4%), 음식료
품(50.6%), 음반·비디오·악기(14.0%) 등
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정보원, 경영진 성과급 기부 릴레이

총 930만원 모아 中소 지원 추진

한국고용정보원이 경영진 성과급 일
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상생협력기
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기
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에 활용한다.
공공기관 경영진이 성과급을 자발적으
로 기부해 기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고용정보원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상생협력기금
에 기부하는 릴레이에 나서 총 930만 원
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박기영 기획전략본부장이 지난 5월 250
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이어 8월에는
이창수 원장이 320만 원을, 9월에는
신종각 부원장이 360만 원을 각각 출연
하며 기관 내 기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특히 이창수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으
로 취임한 이후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의지
를 강조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상생협력기금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성과공유 확산
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충북대
학교 등 20여 개 대학교 및 지자체 창업
지원센터와 협업체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수수
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협력업체
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금
을 조성해 우수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특성화농업지구’ 신설로 지역농업 육성

농식품부, 시·군 특화작물 집중 관리

기존의 7개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
성화농업지구’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 농
업지구에서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
환경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인접 산업·축산 지구와 연계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
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는 내용
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
대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
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
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

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는 논 타작물 등 특
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
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
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게 된다”
고 밝혔다. 또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
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
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
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
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 암모니아 선박 국제표준 판 짠다”

국표원, 국제표준 2건 ISO에 제안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
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한국 주도
로 추진된다. 조선 산업 강점을 기반으
로 국제표준을 선점해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
관 및 기계류(ISO/TC 8/SC 3) 회의에
서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
기의 시험 절차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조선국 전
문가들이 참석해 친환경 연료 선박용 기
자재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제
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100% 감축을 결의한 이후, 글로벌 조선
업계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경쟁에 본
격 뛰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암모니아
(NH₃)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지 않아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
다. 다만, 독성·부식성 등 안전 이슈로
인해 밸브, 배관, 열교환기 등 기자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국표원은 이러한 시장 공백을 기회로
삼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나섰
다. 이번에 제안하는 2건의 표준은 각각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 시험절차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열교환기 시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기후재난 대응훈련 실시

주민대피·응급복구 등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 훈련은 기후변
화로 인한 극한강우·풍수해 등에 대비
해 현장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을 점
검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
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농식품부는 중앙
사고수습본부부를 운영하고, 공사는 현장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청도저수지에
서 실시된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정했
다.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저
수지 방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수
지 월류와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한 복
합 상황이다. 사면 슬라이딩이란 저수
지 주변의 흙이나 암반 경사면이 불안정
해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상상황 발생 직후 공사는 상황판단



전북 김제 청도저수지. /농어촌공사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 등 단
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산
사태로 도로가 막힌 구간은 굴삭기를 투
입해 토사를 제거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와 협력해 훼손된 전신주를 복구하는 등
초동 조치를 병행했다.

또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
악하며 사면 배수를 통해 저수지 수위
를 낮추고 제방 슬라이딩 지점에는 방수
포와 매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 활동
을 전개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삶도 사랑도, 쇼처럼 계속된다!

쥬크박스 뮤지컬

쇼 메시트 고 온

in 대학로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30일(일) 대학로 업스테이지극장

홍서준 황인보 고혜미 이유선 윤토왕 손난희 이주훈 김도후 강동석 김상원 박수현 서유인 김혜상 김희선

총괄프로듀서 최대성 | 작/연출 최대성 | 드라마트루그 김동미 | 음악감독 최은지 | 음악작곡 이정현 | 안무감독 이규도
무대디자인 박단추 | 음향감독 박미리 | 조명감독 곽두한 | 영상디자인 유정임 | 무대제작 수 무대미술 | 조연출 이시훈 | 연출보조 우정인

제작 극단 쇼고(showgo) 극단 신명 | 기획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 NOLETICKET | 문의 02-764-9102

※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경북도,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선정

동서3축 단절구간 연결기반 마련
7兆 들여 왕복 4차로 86.7km 신설
세 차례 추진시도에도 번번이 무산
전북도·무주군과 경제성 확보 힘써

경북도는 영호남을 잇는 지역 숙원 사업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제 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동서3축(김제~포항)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 동서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총연장 291.7km를 잇는 노선으로, 이 가운데 대구~포항(2004년 개통), 전주~무주(2007년 개통) 구간은 이미 운행 중이며, 올해 11월에는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에 오른 무주~성주~대구 구간은 동서3축의 유일한 미완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위치



성 구간으로, 왕복 4차로 86.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조 원 규모로, 무주군(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을 거쳐 대구시(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된다.

이 구간은 1999년, 2010년, 2017년(성주~대구 구간) 등 세 차례 추진이 시도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돼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다. 이에

경북도는 전북도·무주군과 협력해 추가 교통수요 발굴, 지역 낙후도 반영 등 경제성 확보에 힘쓰며 예타 대상 재도전에 나섰고, 이번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현재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남해선과 광주대구선 2개 노선뿐이며, 두 노선 모두 남부권 위주로 연결돼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

로가 개통되면 전북과 대구·경북 등 영호남 중·북부를 직접 잇게 돼 영호남 화합 촉진과 함께 무주·김천·성주 등 낙후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간 미구축된 동서3축을 완성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잇는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아울러 경북 서·남부권과 호남 동부권의 항공 수요를 흡수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수요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이번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창원시, ‘C-블루윙 펀드’ 5호 추가조성

총 186억 규모로 조성
기술 창업 기업 잠재력 ↑

창원특례시는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환경 조성과 선순환 투자 생태계 마련을 위해 ‘C-블루윙 펀드’ 5호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C-블루윙 펀드는 창원(Changwon)의 첫 글자 C와 창원의 젊은 생기를 의미하는 블루(Blue), 날개를 뜻하는 윙(Wing)을 합성한 시·고유 펀드 명칭이다. 창원 산업에 날개를 달아 생동감을 불어넣으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 186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C-블루윙 펀드 5호 ‘경남-나우 경남지역혁신 투자조합’은 경남 지역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첨단방위, 친환경 스마트조선 분야와 경남 지역 미래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AIICT융합산업, 첨단제조 분야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 소재 초기 유망 스타트업에는 창원시 출자금 10억원의 2배인 2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3년에 걸쳐 10억원을 출자한다. 경남벤처투자자와 나우아이비캐피탈이 공동으로 운용을 맡아 전문성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C-블루윙 펀드 5호가 기술 창업 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망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C-블루윙 펀드 1호 ‘인라이트 9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 220억원, 2호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펀드’ 200억원, 3호 ‘연구 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606억원, 4호 ‘다이콘 스타트업 투자조합’ 30억원 등 총 1056억원을 조성해 14개 기업에 1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개 사의 창원 이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해남미남축제 개막식.

/해남군

‘해남미남축제’서 특산물 맛·멋 선포

사흘간 24만3000여명 방문

2025 해남미남축제가 땅끝해남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화창한 가을 날씨속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연인원 24만 3000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미남축제는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 명품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평일임에도 오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 31일에는 해남 14개 주민들이 참여한 읍면별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와 해남8미(八味) 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과 미남트롯축하쇼가 열려 관람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특히 관광객 등 250명이 참여해 해남 515개 마을을 상징하는 해남배추로 김치만들기를 체험하는 ‘515 김치 비빔’과 해남쌀과 김으로 만든 ‘2025 떡국 나눔’은 해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내일부터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진행

오는 7일까지… 29개국 참여

부산시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를 오는 5~7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한다.

또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참가기업의 실질

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개막식은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자재 및 스마트양식관 ▲창업투자지원관 ▲특별관 등이 운영돼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학술행사로는 부산수산정책포럼과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 등이 열려 수산산업의 정책 방향과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전문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개교

에코델타시티 신설, 신연초 재개교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내년 3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급감해 2년간 임시휴교에 들어간 남구신연초등학교가 재개발지역 입주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다시 개교한다. 신설·재개교 과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내년 3월 5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오전

교육청회의실에서 신설·재개교하는 유치원·학교 교장에 대한 사무 취급 겸임발령을 내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내 학교는 15학급 규모의 에코4유치원과 12학급 규모의 에코8유치원, 31학급 규모의 에코4초등학교, 31학급 규모의 에코특수학교 등 4곳이다.

재개교하는 남구 우암동 신연초는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2024년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갔으며 휴교 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부산 최초의 사례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주낙영 경주시장이 홍콩 존 리 행정수반에게 중앙시장 내 상점가를 안내하며 전통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존 리 홍콩행정수반과 시장 방문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수반이 2일 중앙시장 오일장을 찾아 한국 전통시장의 활력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공식 일정이 아닌, 한국 전통시장 문화를 몸소 느끼고 K-컬처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한 민간 교류 차원에서 추진됐다.

존 리 행정수반 일행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활기찬 상가재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지역관광 연계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베트남서 ‘K-Food 팝업’ 열어

경남도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서호점에서 ‘2025년 베트남-경남 K-Food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은 경남도가 주최하는 첫 대규모 해외 농식품 팝업 스토어형 마케팅 행사다. 단순 홍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경남도는 도비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농식품 기업의 현지 시장 테스트와 판매 활로 개척을 돕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립박물관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부산 지역 16개 박물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오는 8일 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2025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박물관협회 소속 기관들이 참여해 각 박물관의 특색 있는 교육·문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2009년부터 시작돼 부산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알리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주시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

경남 진주시는 3일~9일까지 충무공동 혁신도시 일원에서 ‘2025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3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4일에는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에서 홍보·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크리스마스 먼저 즐기세요”… 백화점, 연말 준비 ‘구슬땀’

현대백 ‘더현대 서울’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 구현

롯데백 ‘롯데타운 명동’
‘스위트 홀리데이’ 주제 외관 단장

신세계백 ‘신세계스퀘어’
‘뮤지컬 원더랜드’ 테마 영상 공개

백화점 3사가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테마를 기반으로 한 인증샷 전쟁에 나섰다. 유통업계가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연출에 사활을 거는 건 본격적인 연말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최근 소비 심리가 반등하며 백화점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매력적인 오프라인 장소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려 연말 시너지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더현대 서울에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을 주제로 한 H릴리지를 선보인다. H릴리지 관람은 지난달 23일 사전 예약 당시 동시접속자 4만5000명이 몰린 가운데 30분 만에 마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람



더현대 서울에서 전시되고 있는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 중 편지공방 공간의 모습. /손종욱 기자



2025년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비주얼 테마 스위트 홀리데이(Sweet Holidays)로 물든 롯데타운 명동 전경.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신세계스퀘어에서 열린 2025 크리스마스 영상 랜딩 이미지. /신세계백화점

객을 모집하는 2차 예약은 이달 6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올해 핵심 콘셉트는 ‘ATELIER DE NOEL; made with love(크리스마스 공방; 사랑을 듬뿍 담아)’. 클릭 한 번이면 선물이 도착하는 디지털 시대에 ‘손의 온기’와 ‘진심 어린 교감’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스토리텔링도 강화했다. 산타와 엘프가 모두 감기에 걸려 아기가 곰 ‘해리’가 대신 선물을 준비한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6개의 ‘코티지(시골집)’에 녹여냈다. 이

곳에는 미니어처 기차와 디오라마, 100여 개의 빈티지 장난감 등이 배치돼 동화 속 공방을 현실로 구현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월 31일 롯데타운 명동의 불을 밝혔다. 올해 테마는 ‘스위트 홀리데이(Sweet Holidays)’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나탈리 레테’와 협업해 롯데의 요정 캐릭터 ‘똘뚜(Ttontttu)’가 퍼레이드를 펼치는 동화 같은 비주얼을 완성했다.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본점과 에비뉴엘 외벽에 총 3만 개의 LED 조명을 사용해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파사드를 연출했으며, 13미터 대형 트리와 약 100m 거리의 ‘움직이는 쇼윈도(디오라마)’로 명동 일대를 화려하게 물들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7일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하며 경쟁에 합류한다.

올해 테마는 ‘뮤지컬 원더랜드(Musical Wonderland)’로, CJ ENM과 손잡고 ‘킹키부츠’, ‘비틀즈’ 등 브로드웨

이 뮤지컬 IP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라는 주제로 푸빌라 캐릭터와 함께 김준수, 강홍석 등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담은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상 공개에 앞서 강남점 1층에 대형 트리 로드를 설치하고, 뮤지컬 콘셉트의 팝업스토어 ‘썬뮤 산타즈의 선물공장’을 여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딤섬 라인업 강화 G마켓·옥션, 11일까지 ‘빅스마일데이’

‘냉동만두 1위’ 노하우·기술력 결집
외식 전문점 수준 신제품 2종 선보

CJ제일제당이 외식 전문점 수준의 딤섬 신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새우하가우’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첫 선을 보인 ‘고메 샤오롱바오’에 이은 두번째 제품으로 냉동만두 1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딤섬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제품 ‘고메 새우하가우’는 CJ제일제당이 개발한 최적의 피 배합과 뜨거운 물을 붓는 익반죽 공법으로 만든 속이 비치는 투명하고 쫄깃한 피가 특징이다. 여기에 새우소를 가득 채워 원물 본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렸다. 트레이(용기)에 담겨 있어 전자레인지 2분 30초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전문점 못지않



고메 딤섬 2종(샤오롱바오, 새우하가우) /CJ제일제당

은 딤섬의 맛을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메 딤섬’은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 기술력으로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역대 최대 마케팅 예산 투입

G마켓과 옥션이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열고, 매일 최대 30개의 특가상품을 단독 할인가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특가상품은 빅스마일데이 행사가에 최대 20%를 추가 할인하는 기획 상품이다. G마켓은 역대 최대 마케팅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할인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1일까지 ‘샤크닌자 블라스트 믹서기’, ‘해남 절임배추’, ‘경동나비엔 카본 매트’, ‘레노버 패드 프로’, ‘드롱기 에스프레소 머신’, ‘갤럭시탭 S10 울트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빅스마일데이는 오는 11일 2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G마켓과 옥션은 최대 20% 할인 쿠폰팩을 비롯해 카드 결제 할인, 브랜드 중복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내세운다.

빅스마일데이 참여 상품은 ‘빅스마일데이’ 로고를 통해 식별할 수 있으며, ‘빅스마일데이 상품 모아보기’ 기능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가격 혜택 강화를 위해 할인쿠폰 지원, 판매자 협력 등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진짜 할인’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할인에 할인을 더한 ‘특가상품’은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이럴 되면서 품질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구매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세븐일레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K-데이’ 이색 기획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까지 공략하는 ‘K-데이’ 마케팅에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글로벌 캐릭터 ‘테디베어’, ‘산리오캐릭터즈’와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 등을 활용한 빼빼로데이 상품 116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테디베어 및 산리오캐릭터즈 기획상품은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테디베어 빼빼로 3종은 특정 결제수단 이용 시 2+2 행사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쿠팡, 3주간 메가뷰티쇼… ‘뷰티박스’ 추가

5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쿠팡이 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주간 인기 뷰티 브랜드 제품을 특별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 ‘메가뷰티쇼’를 진행한다

메가뷰티쇼는 쿠팡이 연 3회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대표 뷰티 행사로, 이번에는 이자늑스, 메디힐, 바닐라코, 아이오펜 등 총 1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지투웨니스 ‘사이닝드롭 에디션 팩트 세트’, 이지듀 ‘멜라비 토닝 앰플 쿠션 세트’,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 AHC

‘온리 포 맨 올인원 에센스’ 등 각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뷰티박스’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주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뷰티박스를 증정한다.

와우회원에게는 1+1 특가, 골드박스 와타임딜, 할인 쿠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쿠팡 관계자는 “올해도 엄선된 브랜드와 풍성한 혜택을 통해 고객이 합리적으로 뷰티 트렌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그룹, 대규모 클리어런스 행사

패션·가전·와인 등 최대 90% 할인

신세계그룹이 연중 최대 쇼핑 축제 ‘2025 쓱데이’를 맞아 이달 9일까지 패션, 가전, 와인 등 인기 상품을 최대 90% 할인하는 대규모 클리어런스 행사를 진행한다

창고 대방출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W컨셉, SSG닷컴 등 주요 계열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먼저 패션 부문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여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 ‘멀티브랜드 팩토리스토어’를 통해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컨셉은 온·오프라인에서 패딩, 코트 등 800여종의 시즌 인기 상품을 최대 90% 할인하

며, 스타필드 수원에서는 클리어런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SSG닷컴은 ‘마법 같은 특가 상품’ 행사를 열어 패션·뷰티·리빙 등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다.

가전·리빙 부문에서는 이마트24가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임이 스마트TV 43형’을 100대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신세계까지는 ‘앰마’ 소파 시리즈 50% 할인, ‘파츠’ 시리즈 70% 할인, 침대 프레임 등 일부 제품 균일가 판매 등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류 애호가들을 위한 할인전도 마련된다. 엘앤비(L&B)는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에서 팝업을 열고 ‘아마자키’, ‘히비키’ 등 인기 위스키와 ‘사또 딸보’ 등 희귀 와인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국내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개발 입지 다진다

삼성에피스홀딩스

바이오시밀러 역량강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투트랙 전략

셀트리온

면역항암제, 항암 병용요법 등 개발
AI 기반 유전체 탐색 기술 도입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삼성에피스홀딩스와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신약개발로 성장 축을 세우고 있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로 공식 출범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운영함과 동시에 별도의 신설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오는 14일까지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고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역량 강화와 바이오시밀러 이후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자회사는 다양한 치료 접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법을 확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해 라이선스 아웃,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들어 항체·약물 접합체(ADC) 항암제, 유전자 편집 기술,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늘리며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지속 육성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1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4종부터, 중앙질환 3종, 안과질환 2종, 신장·혈액질환 1종, 내분비질환 1종까지 파

이프라인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다. 향후 고령화 인구, 만성질환 환자 등에도 주력해 20개 이상의 제품을 추가하며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43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7670억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부문 또한 11%의 성장세가 관측된다”며 “다만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전체 바이오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



셀트리온.

/셀트리온

로 사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국내 신약개발 전문 회사들과 공동연구에 나서며 전문성은 보완하고 기술력을 결합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국내 다중항체 개발 회사 머스트바이오와 면역항암제 신약개발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삼중 항체 구조로 설계된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며 머스트바이오의 다중항체 플랫폼과 셀트리온의 항체 기술력을 응용한다.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와는 항암 병용요법 임상을 준비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코네티라퓨틱스의 항암신약후보물질 ‘네스파림’과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

의 병용요법에 대한 국내 임상2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 난소암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인 파프 저해제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요법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국내 테크바이오 기업 포트레이의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탐색 기술도 도입했다. 암 환자 유래 종양 세포와 주변 미세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암 종별 고유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밝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체 파이프라인에서는 ‘CT-P70’ 임상 1상을 진행한다. 올해 안에 CT-P71, CT-P72, CT-P73 등의 임상시험계획을 순차적으로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 측은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과감한 투자로 신약부문에서도 ‘항체 명가’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 짐펜트라는 셀트리온이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를 획득한 첫 제품이다.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는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초콜릿부터 호텔 패키지까지… 가지각색 ‘수능응원’ 선물

유통업계, 연말특수 선점 총력전
보온도시락·보온병 최대 50% 할인
주요 대학가 유명 베이커리 협업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수능 마케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간식과 방한용품 등 실속형 할인 행사부터 이색 팝업스토어와 협업 상품,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전용 패키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 특수 선점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수능 응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험생 간식으로 인기 있는 초콜릿, 캔디, 젤리류는 10개 브랜드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페레로로쉐 콜렉션’ 등 인기 선물



갤러리아백화점은 수능 마케팅으로 수험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가 유명 베이커리 10곳과 협업한다.

/한화갤러리아

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혜선 보인다.

또한 수능 당일 점심을 위한 보온도시락과 보온병은 최대 50% 할인한다. ‘씨모스’ 등 글로벌 브랜드 상품은 물론, 이마트 단독 기획 텀블러 6종도 30% 이상

저렴하게 선보인다. 수능합격 손목시계와 사인펜 등 문구류, 핫팩 전 품목도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이달 12일까지 뽀빠로데이 겸 수능 맞이 행사를 열고, 행사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즉시 할인 혜

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이달 13일까지 간식과 선물 3만여 개를 모은 ‘스위트샵’ 기획전을 연다. ‘수능선물’ 테마관을 별도로 마련해 초콜릿, 건강식품부터 도시락, 방한용품까지 다양한 응원 상품을 선보인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13일까지 서울 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에서 ‘수능특집 팝업’을 운영한다. ‘합격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테마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가의 유명 베이커리 10곳을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1주차에는 서울대 ‘원도넛’, 연세대 ‘라폴로레종’, 고려대 ‘베이커리어썸피넛’ 등이 참여하며, 2주차에는 연세대 ‘피터팬1978’, 성균관대 ‘건강한뽕’ 등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행사 기간 고교 학생증을 지참하면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팜스누’와 협업한 ‘약콩두유빵 시리즈’ 2차 라인업 4종을 추가로 선보였다. 맛과 영양은 물론, ‘행운의약콩쿠키 선물세트’ 등 수능 선물 콘셉트를 강화했다.

GS25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튜브 채널과 협업한 ‘수강 쿠폰 동봉 뽀빠로’를 선보이고 이달 7일 수험생 대상 기획 상품인 찹쌀떡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수험생이 사용하기 좋은 기모 타이츠, 방한 마스크 등 용품을 내세우고 있다.

호텔업계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패키지를 내놨다. 신라스테이는 ‘클락아웃, 칠아웃’ 패키지를 출시했다. 내년 2월 12일까지 이용 가능한 이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인과 함께 다양한 할인 바우처로 구성됐다. 특히 수험표를 지참하면 뷔페 레스토랑 본인 50%, 동반 2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 체제 전환

삼성에피스홀딩스 인적분할 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체제를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최한 이사회에서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는 인적분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분할보고총회 결의를 결의했다.

분할기일은 11월 1일이며 회사분할 등 기신청 등을 진행한다. 분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시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으로 분할돼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이다.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가 제기해 온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순수 CDMO로 거듭남으로써 글로벌 톱티어 CDMO로의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화벽을 운영하는 등 각 사업을 엄격하게 분리해 영위했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고객사와 경쟁하는 데 따른 우려를 받았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해당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고 CDMO와 바이오시밀러라는 서로 다른 두 사업에 동시 투자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고민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순수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32년까지 기존 5공장에서 8공장으로 설비를 확충해 제2바이오캡 퍼스를 완성한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ASD 후보물질 개발 박차

〈자폐 스펙트럼 장애〉

美 인테론과 공동연구개발 계약

SK바이오팜은 지난 10월 31일 미국 보스턴 소재 바이오텍 기업 인테론과 ‘신경면역 시스템 조절을 활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인터루킨-17(IL-17) 작용 촉진제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IL-17이 뇌 신경세포의 IL-17 수용체와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해 자폐 증상

을 개선하는 기전을 규명한다.

양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에 대한 계열 내 최초(퍼스트 인 클래스) 전임상 후보물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초기 유효물질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성과가 도출될 경우 SK바이오팜은 해당 물질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권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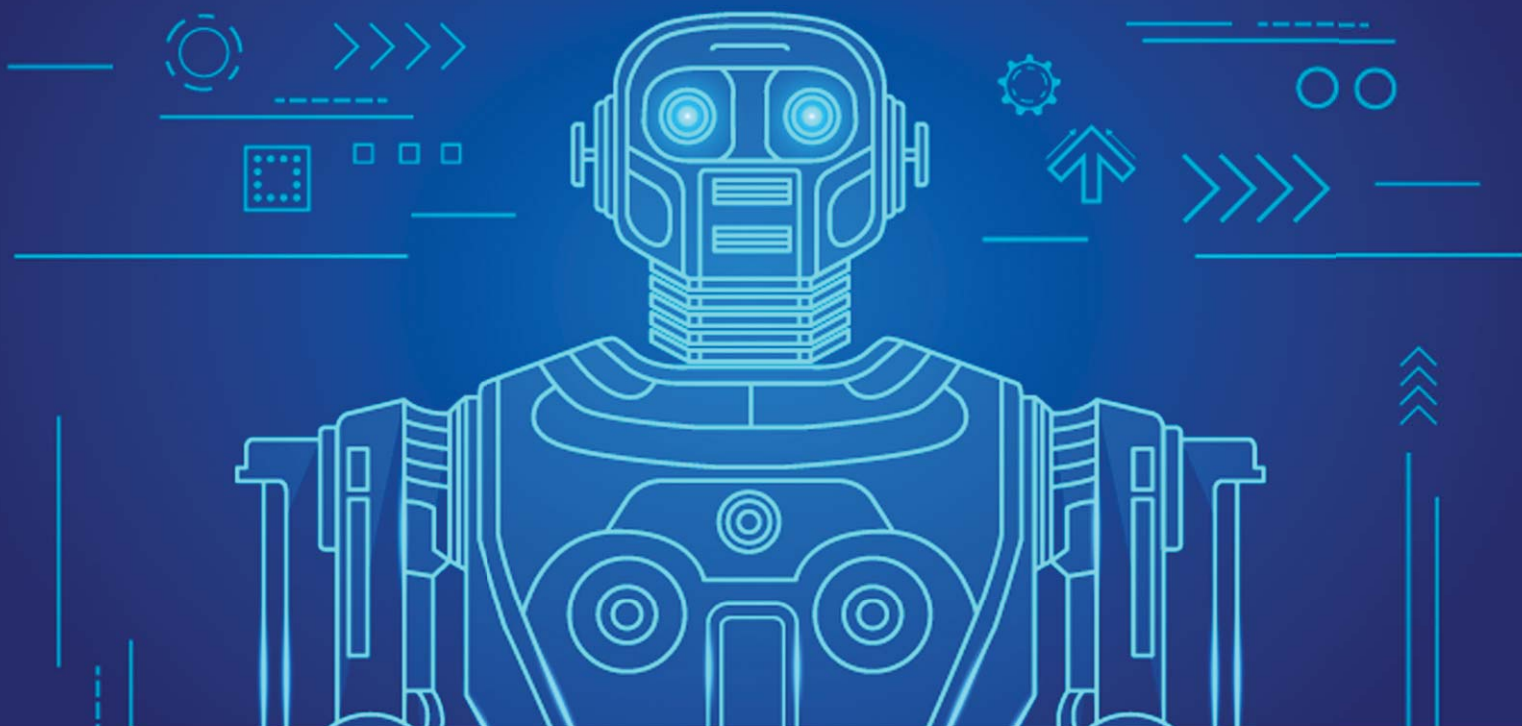
이번 협업은 SK바이오팜이 중추신경계(CSN)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존 뇌전증 중심의 신약개발을 차세대 신경면역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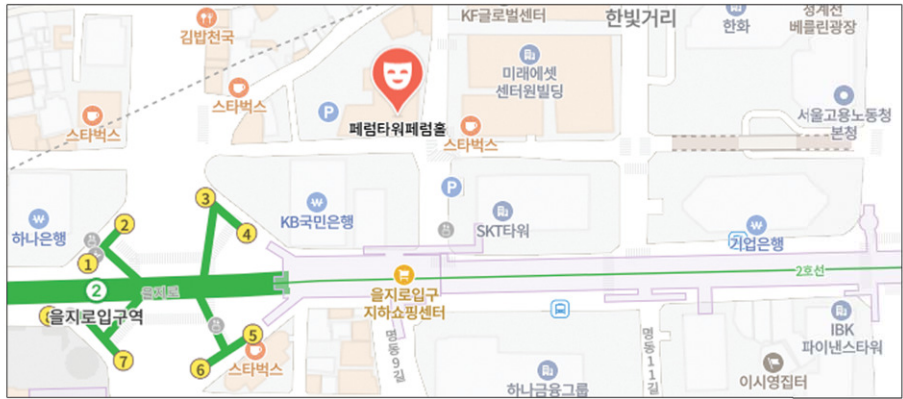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해민 국회의원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오토즘 레이스'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오토즘 레이스'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과 가족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함께 뛰었다. /하나금융그룹



넥슨게임즈, 위드영 프로젝트… 초록우산 1억 기부

넥슨게임즈는 넥슨재단과 함께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위드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초록우산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 두 번째부터)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넥슨게임즈 강인수 경영총괄본부장, 넥슨재단 공미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넥슨게임즈



LG U+, '119메모리얼런' 2300여명 참가

LG유플러스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순직 소방관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이 23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참가비 전액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단체 '소방가족 희망나눔'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금은 유가족 지원과 추모 활동에 사용된다. /LG유플러스



유한양행,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 시상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기총회를 통해 '유한결핵 및호흡기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유한양행 유재천 부사장, 삼성서울병원 정만표 교수, 철강경북대학교병원 박재용 교수, 안중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현대해상, 전국 3개 병원 '도서관 마음하트' 개관

현대해상은 올해 전국 3개 병원(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국립나주병원)에 '도서관 마음하트'를 추가로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각 병원에 양질의 도서와 도서집기, 북카페형 인테리어를 지원했다. 향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한화문화재단, 美 전시공간 마련… 韓 신진작가 소개

7일 '스페이스 제로원' 개관 'Contours of Zero' 첫 전시

한화문화재단은 오는 7일 뉴욕 문화예술의 중심지 트라이베카에 비영리 전시 공간 '스페이스 제로원(Space ZeroOne)'을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스페이스 제로원의 첫 전시 'Contours of Zero'는 기술, 물질성, 문화 정체성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한국 신진 작가 8인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한화문화재단의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 출신 백정기, 유지영, 지희킴을 비롯해 박정혜, 서진호, 송민정, 오가영, 홍기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는 공간명 '제로원(ZeroOne)'의 의미에서 출발한다. '제로(Zero)'를 무(無)가 아닌 잠재적 가능성으



제로원 개관전 포스터. /한화문화재단

로, '원(One)'을 그 가능성의 실현으로 해석한다. 작가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평면,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며 기술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개관일에는 참여 작가와 뉴욕 미술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공식 오픈링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장 중층에서는 홍승혜 작가의 '메자닌 라운지' 프로젝트가 함께 공개된다. 작가의 기하학적 추상 오브제로 라운지를 꾸며 '사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예술'을 실험한다. 이는 예술의 실재적 기능과 유용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스페이스 제로원의 공간 정체성을 확장한다.

한화문화재단이성수이사는 "스페이스 제로원은 뉴욕 현대미술계에 한화문화재단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Zero(영)'와 'One(원)'의 결합은 작가들의 창작 여정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스페이스 제로원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하림, 올레곤 위한 특별한 닭고기 요리 선보인다

'제주올레걷기축제' 제품 후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2025 제주올레걷기축제'에 제품을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올레꾼들에게 특별한 닭고기 요리를 선보인다.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 한 코스씩 제주올레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다채로운 지역 먹거리도 즐길 수 있어 제주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꼽힌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북부에 위치한 올레길 17, 18 코스에서 진행된다.

하림은 축제의 열기가 한창인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코스 중점인 화



하림 부스에서 판매 예정인 '하림 난만포차 세트'. /하림

북포구에서 화북동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직화 닭목살 구이 매콤한맛'과 '닭발편육' 2종(매콤·갈릭)으로 구성된 특수부위 안주 메뉴 '하림 난만포차 세트'를 선보인다.

'직화 닭목살 구이 매콤한맛'은 닭한 마리에서 한 점만 나오는 귀한 부위인 목살을 매콤한 특제 양념에 재워 직화로 구워낸 제품이다. 불향 가

득한 풍미와 아늑아늑한 식감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닭발편육'은 신선한 국내산 무뼈 닭발을 편육 형태로 만들어 쫄득하게 씹히는 식감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매콤, 갈릭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두 제품을 활용한 메뉴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마을 발전을 위해 부녀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하림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거나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참여할 수 있는 '몬홀 게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하림몰 상품권부터 실용적인 커스텀 굿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 '하이테크 탠런트 트랙' 지원자 모집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 인재 육성

현대자동차가 서비스엔지니어 인재 발굴을 위한 채용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 '하이테크 탠런트 트랙(High-Tech Talent Track)'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테크 탠런트 트랙'은 전기·전자, IT/SW 등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고난도 진단 및 정비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현대차의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이나, 진단 및 정비 관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경우 학위와 무관하게도 지원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전국 22개 하이테크 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무 교육과 차량 통신통신(V2X), 소음 및 진동(NVH) 등 첨단 분야별 특화 교육을 받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라 자동차 정비 분야 엔지니어의 역할과 전문성도 진화하고 있다"라며 "현대차는 첨단 분야까지 확장될 미래에 대비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독보적인 역량을 가진 하이테크 전문가로 육성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위아, '그린 더 플랫닛' 캠페인 전개

임직원 가족 등 120명 참여

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포레스트벤처스 식물연구센터에서 '그린 더 플랫닛(Green the Planet)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 더 플랫닛'은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위아 임직원 및 가족 약 120명이

참여했다.

현대위아 직원과 가족들은 ▲생태계 교육 ▲묘목 분갈이 및 씨드볼 만들기 ▲생태슈가꾸기 등 3가지 미션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현대위아는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확대해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이화의료원

보구녀관 138주년 기념식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0월 31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컨벤션센터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80주년 및 보구녀관(普救女館)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은 지난 1987년 서울 정동에 미국 북감리회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자 의학 교육기관이다.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사진)은 축사를 통해 "작은 진료실에서 피어난 치유의 불씨는 오늘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이화의료원의 사명으로 이어져 이화의료원은 섬김과 나눔의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스마일게이트

'투명경영대상' 수상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회계정보학회가 선정하는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투명경영대상은 한국회계정보학회가 회계 투명성 향상과 윤리·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그룹 CEO(사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재무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윤리 경영을 적극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IBK기업은행 ◇임원 승진 (수석전무)△S&T부문장 박태 ◇임원 승진 (전무)△DT부문장 심완보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상무)△IB부문장 겸 구조화 금융본부장 김병규 ◇임원 신규선임 (상무)△Wholesale부문 패시브영업본부장 정재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 공무원 인사 △사무차장 박학민

◆디지털데일리 △사업본부장 김진석 △편집국장 겸 기사유료화서비스 준비단장 채수용

부음

▲김중환씨 별세,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숙향씨 부친상= 3일 곡성성심장례식장, 발인 5일. 061-362-9200

▲이정현씨 별세, 최재영(프로야구 KT 위즈 스카우트팀 부장)씨 모친상= 3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03), 발인 5일. 062-951-1004

김장철 붉은 고춧가루의 배신



연 윤 열 의

푸드톡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짜 고춧가루 사건이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사건 판결문에서 한국인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짜 고춧가루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업자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무려 13억 원여치를 팔아넘긴 이야기다. 이 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닭갈비와 소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 왔는데, 포장지에는 당당하게 ‘국내산’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산 고춧가루가 다량 섞여 있었다. 법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가짜 고춧가루의 수법 또한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중국산 건고추나 다대기 혼합 양념을 건조하여 국내산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후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다대기 형태의 혼합양

념을 건조한 후 고춧가루 제품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통해 유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초래하도록 표시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적용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허위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 작구로 수입하거나 배달음식 등 유통망이 복잡하거나 온라인 판매 상품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추적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짜 고춧가루 유통은 농민들의 정직한 노력과 한국음식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를 위협하는 악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 식문화의 ‘영혼’이 담긴 고춧가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짜 고춧가루로부터 진품을 가려 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가짜 고춧가루를 가려내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색깔을 확인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선명한 주홍빛을 띤다. 반면 중국산은 탁하고 어두운 적갈색에 가깝다. 지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식용색소를 첨가하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광 아래에서 자세히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향을 맡아 보자. 국내산은 고추 특유의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난다. 중국산은 향이 약하거나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쳐 보기 바란다. 후각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입자를 관찰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입자가 균일하고 곱다. 중국산은 굵기가 불균일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질감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가격을 의심하자. 만약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국내산’이라 표기되어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싼게 비지떡’이란 우리 속담을 기억하자.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적’ 마인드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올해 국정감사는 급하게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돌아보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았지만, 중요 상임위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감사가 덜 주목받았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번 국감은 ‘대(大)솜씨시대’ 아래와 함께 자극적이고 감사와 상관 없는 이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미래 과학 기술 진흥과 방송의 중립성 등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보여줬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私感)’에 휩싸여 생중계 중인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 중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결혼을 했고 과방위 피감기관이 해당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하는 대관(對官) 직원들은 ‘을’이 아니라 ‘병’, ‘정’의 위치로 추락한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의원 질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읍소전략을 펼친다.

그런데, 하필 피감기관의 신경이 곤두선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하다니, 국회의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의 무게를 망각한 ‘사적 마인드’로

점철된 사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녀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관 직원들은 진실로 최 위원장의 자녀의 결혼을 축하했을까. 오히려 최 위원장에게 마음의 빔을 지우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여야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여야 정쟁의 수준이 높은 상임위원수록 이를 이끄는 위원장의 공적 마인드도 철저해야 한다. 정당도 주요 직책을 인선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진 ‘공적 마인드’ 수준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격자가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pj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9월 15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옛 은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48년생 살가운 권모술수를 조심해야 할 듯. 60년생 이성을 바꾸어가며 만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72년생 더위는 더위로 해결하도록. 84년생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지킬 것 아닌가.



소

37년생 직장에서 도덕심은 나를 오래도록 이끌어준다. 49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61년생 양다리 걸치지 마라. 73년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것. 85년생 진정한 부자는 베풀면서 겸손해한다.



호랑이

38년생 옛말에 삼재팔난이라 했으니 먼저 배려하라. 50년생 종일 시장을 다니며 물건을 구경한다. 62년생 너무 계산하다가 좋은 사람 놓친다. 74년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86년생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토끼

39년생 옷이 남루하여도 슬퍼 말라. 51년생 돈도 능력이니 부지런히 벌여라. 63년생 대중 뒤에는 언제나 하늘은 맑아지게 될. 75년생 간사 한자에 모함에 걸리지 않게 나도 말조심. 87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격려하여 기쁘다.



용

40년생 본심이 밝고 맑다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 52년생 약속이나 기한이 늦어져도 다투지 마라. 64년생 집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으니 다시 일으키게 된다. 76년생 자격증시험 합격소식. 88년생 인간사새옹지마(人間事塞翁之馬)이니.



뱀

41년생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다. 53년생 히로애락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 65년생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77년생 마음이 어진 선배 조력은 힘이 된다. 89년생 세상에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다.



말

42년생 죽음의 허무함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도 있다. 54년생 연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66년생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하지만. 78년생 일이란 혼자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90년생 기술력은 좋으나 세상 물정은 모른다.



양

43년생 비뿔 때 견널목에서 차랑주위. 55년생 조부모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듯. 67년생 자신의 허물은 생각 않고 항상 남의 잘못만 꼬집어낸다. 79년생 뜻 맞는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 91년생 최소한 자기 주변에 인색하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잘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56년생 때로는 안경을 벗어보면 보인다. 68년생 영업에서 실적이 없으면 더욱 피곤한 것이다. 80년생 주택 집에 오동나무를 심어 볼까나. 92년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날.



닭

45년생 작은 부주의로 일을 그르치니 잘하자. 57년생 약한 자가 강자에게 달갈로 바위를 친다는 말을 살펴보라. 69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현명하게. 81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 있다. 93년생 역마의 기운으로 먼 길 떠나 객지 밥을 먹는다.



개

46년생 과시에 치중하면 복덕을 깬다. 58년생 자식의 학력위조는 결과가 시끄럽다. 70년생 말이 많다 보니 내면이 빈곤. 82년생 공부하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다. 94년생 돈을 벌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하는 글귀를 보라.



돼지

47년생 의외로 묶여있던 어려운 일이 풀린다. 59년생 증권도 계획 없는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71년생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83년생 마음에서 마음인 심상인(心心相印)이다. 95년생 상생세도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느슨해진다.

김상회의四季

무중생유 계책



무중생유無中生有는 36계 병법 중 일곱 번째 계책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 계책에는 창조와 변화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지혜가 담겨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인생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특히 개인의 운명을 탐구하는 학문인 명리학과 접점을 이루는데 사주팔자를 통해 개인이 타고난 기운과 운의 흐름을 분석한다. 명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어진 기질과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얻는 데 마치 인생의 지도와 같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살면서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만난다. 흥운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한다. 그러나 無中生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난의 상태를 절망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준비 단계로 인식한다. 사주에 재성이 약해 돈을 버는 재능이 부족하다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고유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한계의 지점에서 길을 찾아내는 지혜를 말한다. 운세가 약한 시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약해지는데 무중생유의 태도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확신으로 행동하면 자기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명리가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알려주는 지도라면, 無中生有는 그 지도 위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 지혜로운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계책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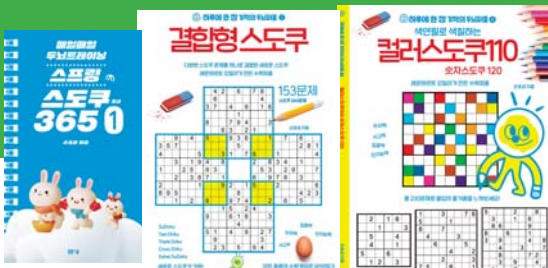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안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3	7		5
	7						6	1
7		8		3		4		
4			3	7				
		1			5			
			8		9			4
		2		4		6		3
8	6						4	
1		3	4				5	7



2					1		8	7
8		9		6				
		8	2		9	5	4	
4		3			7			
	9						5	
		2			8		4	
	8	7	4		3	1		
				5		4		3
1	4		3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9	1	6	3	7	8	5
3	7	4	5	9	8	2	6	1
4	1	6	3	5	7	9	2	8
9	3	1	2	8	4	5	7	6
6	2	5	8	7	9	1	3	4
5	8	2	7	4	1	6	9	3
8	6	7	9	1	5	3	4	2
1	9	3	4	2	6	8	5	7

8	ㄴ	9	ㄹ	6	ㅁ	8	9	ㄴ	ㄴ
ㅁ	ㄴ	8	9	ㄴ	9	ㄹ	6	ㄴ	6
9	6	ㄴ	8	ㄹ	ㄴ	8	9	9	9
ㄹ	9	8	ㄴ	ㄹ	6	ㄴ	ㄴ	6	ㄴ
ㄹ	9	8	ㄴ	ㄹ	6	ㄴ	ㄴ	6	ㄴ
9	9	6	ㄴ	ㄴ	8	ㄴ	ㄴ	ㄴ	ㄴ
ㄴ	ㄴ	ㄹ	9	9	6	ㄴ	ㄴ	ㄴ	ㄴ
ㄴ	8	6	ㄴ	8	9	ㄴ	ㄴ	ㄴ	ㄴ

내년 서울정원박람회, 역대 최대규모로 연다

서울시, 내년 ‘천만의 정원’ 확대 개최
180일간 서울숲·매한시민의숲 일대

지난 5월부터 165일간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1044만1497명이 다녀간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과 매한 시민의숲 일대에서 역대 최장 180일간 확대 개최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메인 행사를 열고, 가을 단풍 명소인 매한시민의숲에서는 10월 한 달간 ‘가을 특별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개최 기간과 공간을 모두 확대한 ‘역대급 정원축제’로, 서울의 자연·문화·도심 공간을 아우르는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사 규모는 서울숲(약 48만㎡)과 매한시민의숲(약 18만㎡) 등 총 20만 평에 달하며, 성수동 골목길과 한강·중랑천·양재천 등 수변공간까지 연결해 사계절 정원 경관을 선보인다.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감성가든 ▲리버뷰가든 ▲트렌드가든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은 생태·가족·문화·휴식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정원문화를 시민 생활 속으



지난 5월부터 165일간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모습. /서울시

로 확산시킨다.

서울시는 특히 내년 박람회를 ‘탄소 중립형 생태정원’과 ‘K-컬처 예술정원’으로 이중 구성한다. 폐목재 등 순환 자원을 활용해 생태적 조화를 살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세계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정원축제로 키운다는 목표다.

매한시민의숲에서는 내년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1986년 개원해 내년 40주년을 맞는 매한 시민의숲은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천, 여의천 등으로 정원 네트워크를 확장해 서초·강남권 정원벨트를 구축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내년 정원박람회를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키링 버튼 한번으로 긴급신고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확대

서울시, ‘안심헬프미’ 10만개 지원
위급시 3초간 누르면 관제센터 연결
사회안전약자 신청자에 무료 지원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 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 전송과 긴급신고 기능을 강화한 생활안전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헬프미 지원 물량을 지난해(5만명) 대비 올해 2배로 늘려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그 외 희망자의 경우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헬프미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

영돼 기능과 디자인도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보다 신속하게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도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다만, 안심헬프미와 서울 안심이 앱 간 최초 1회 연동은 필수다.

그 밖에도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기간이 완충시 약 1년으로 늘어났고, 기기 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키링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총 5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스트랩 탈착이 가능해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트랩 외에 내가 원하는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민생쿠폰’ 2차 지급률 97.3% 기록

이달 30일까지 사용 당부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기준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1181만 2000여 명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는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각각 98.1%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 초기인 7~8

월 경기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액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액 4097억 원을 포함해, 실제 사용 증가분 6765억 원은 소비쿠폰이 지역소비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도민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작은 말이 큰 힘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서울교육청, 생명존중 응원문구 전시
학생들이 쓴 문구로 정서적 공감 쌓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생명존중 응원 문구 전시회 ‘작은 말이 큰 힘이 되는 순간: 나를 응원하는 한마디’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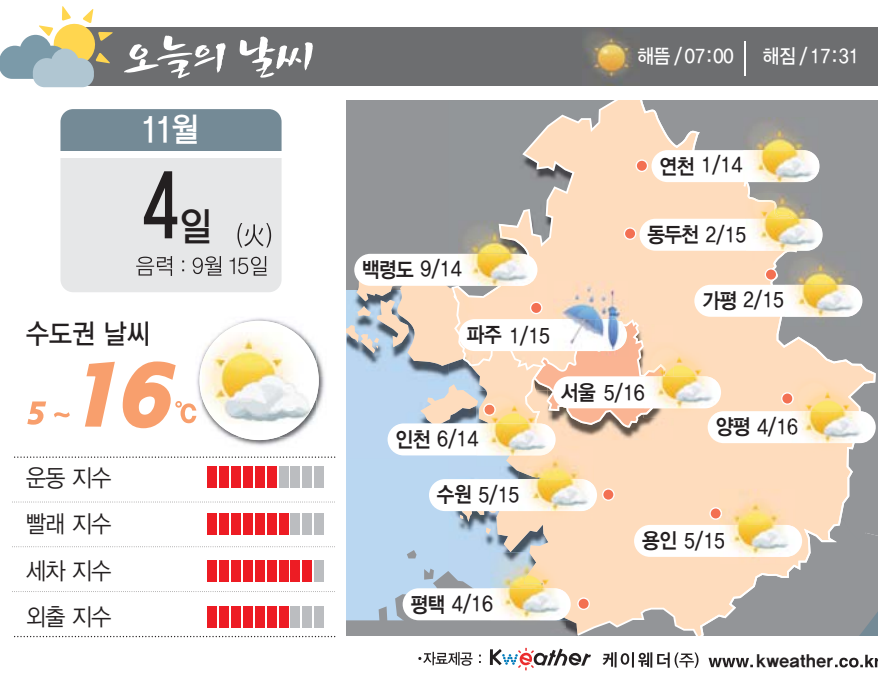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지난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생명존중·자기존중 문구가 소개된다. 참여 학생은 약 900명이며, 이 가운데 창의성과 진정성이 돋보인 50개 문구가 최종 선정돼 전시된다.

행사 기간 중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종로·중구·용산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협찬한 리플렛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과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규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문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가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과 긍정적 자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 통합콜센터·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中 제압보다 협력이 낫다…첨단 AI칩은 안 줘”
▲中전문가들, 韓中정상회담 긍정 평가…“양국 관계 정식 재개” /사진 뉴시스

▲독일 망명 신청자 절반으로 급감…“이민 통제 효과”
▲나토 군사위원장 “나토는 핵 동맹…러 발트3국 공격시 美와 함께 대응”

▲“日다카이치, 北에 김정은과 회담 의사 이미 전달”
▲아프간 북부서 규모 6.3 강진…최소 10명 사망·260여명 부상



‘인증샷 성지’
백화점
연말준비 돌입
L1

metro®

Life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개발
입지 다진다
L2



코딩으로 미래를, 기술로 안전을... 디지털로 온기 더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CJ올리브네트웍스

디지털 전환(DX) 시대, 본업과 깊게 연관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 있다. IT 서비스 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자사의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과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사회공헌 영역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며 ‘테크 포 굿(Tech for Good)’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10년째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CJ SW창의캠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ESG 활동 중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임직원 참여형 AI·SW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코딩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IT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술 기부’ 현장에서 아이들은 미래를 꿈꿨다.

올해는 경기도교육청, 한국창의과학재단, 서정대학교와 손잡고 ‘찾아가는 AI·SW 창의캠프’를 진행했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올 9월 한 달간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에서 열린 프로그램에는 고양시 20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네오싱카 교구를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태블릿과 교구를 연결해 블록코딩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은 직접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선보였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 현장에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걸스 캔 두 IT

CJ올리브네트웍스는 여학생들의 IT 분야 진출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걸스 캔 두 IT(Girls can do IT)’는 CJ-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한 여중생 대상 해커톤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CJ나눔재단 지원을 받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여중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6월 한 달 동안 16시간에 걸쳐 레고를 활용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 교육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5일 CJ 인재원에서 열린 해커톤 결선에서 ESG를 주제로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1 지난 7월 5일 개최한 걸스 캔 두 IT 해커톤에서 참가 학생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회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2 CJ올리브네트웍스 봉사단과 용산소방서 소방관이 함께 ‘보이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있다.

3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 봉사단이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2015년부터 AI·SW 교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학생에 코딩교육 기회 제공
여학생 IT 진출 독려하는 해커톤 운영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체계적 교육

휠체어 경사로·화장실 등 정보 수집
이동약자 위한 생활편의 지도 구축
QR코드 활용 소화기 관리·점검 활동
노년층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실천도

트웍스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1등의 영예를 안은 은평 갈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야생동물 자동 감지 장치, 컬러센서 기반 이끼 처리기, 미세먼지 농도 감지 풍차 제어 장치 등을 선보였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해커톤 결선 당일에는 초등 여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SW 창의캠프도 개최됐다. 레고 블록 STEAM 교육과 네오싱카 교구를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 체험 활동이 이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걸스 캔 두 IT는 UN에서 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17개 주제를 배우고, IT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기반의 커리큘럼이 특징”이라며 “최신 기술 트렌드가 반영된 교재와 현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현장감 높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중”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IT 역량을 기반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양질의 교육’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IT 전문성과 핵심 역량

을 바탕으로 주로 지역 간 IT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여해왔다”고 부연했다.

◆휠체어 경로부터 소화기 점검까지...IT 기술로 구현하는 안전 사회

CJ올리브네트웍스의 ESG 활동은 교육에만 머물지 않는다. I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행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휠체어 이동정보 수집’ 봉사 활동이 대표적이다. 임직원들이 분사, 분당사옥, 송도 데이터센터 인근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휠체어 이용 가능 경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가공 과정을 거쳐 장애인 이동 편의 지도 앱에 반영된다.

이동 약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향상이 목표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T 기업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용산소방서와 협력한 ‘보이는 소화기’ 정기 점검 활동도 눈길을 끈다. 보이는 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된 공용 소화기로, 현재 서울에 4만2979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483대가 용산구에 있다.

임직원들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소화기의 과소 여부와 상태를 점검한다. 소화기에 부착된 QR(정보무늬) 코드를 스캔해 관리 번호,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입력하면 소방서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와 보수를 실시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개선 제안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노년층 디지털 교육으로 지원 대상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는 노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IT 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력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술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아동 청소년과 지역 사회를 타깃으로 한 나눔봉사(사회공헌) 활동을 중점 운영하고 있다”면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SW창의캠프 등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스탠딩 투게더’ 등 다양한 활동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연말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실제 관심도 높은 사회 문제를 정해 이와 관련된 나눔봉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1골1도움’ LAFC, 오스틴 꺾고 MLS P O 8강 진출
▲부상 뒤흔쳐낸 조규성, 홍명보호 발탁...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
/사진 뉴시스

▲다저스 김혜성, 우승 트로피 안고 미소...4일 카 퍼레이드 참가
▲UFC 2연승 거둔 고석현 “더 열심히 훈련하며 성장할 것”

▲김하성, MLB FA 랭킹 34위...美 매체 “안정적인 수비에 평균 수준 타격력”
▲‘트럼프 선물 금관’ 실물 공개에 관람 인파...회 차당 150명 제한



도전의 영웅들

치열한 승부 속
선수들의 땀이 만든
눈부신 가을

LG트윈스
그리고 모든 구단들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2025 한국시리즈
LG트윈스의 네 번째 우승을 축하합니다

The Return of Champions! 펜과 함께 다시 한번 이뤄낸 통합우승입니다.